

대학의 유형별 기원에 관한 고찰

— 법학교육 전개 과정에 관한 고찰도 아울러서 —

김영희*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중세 대학 이전의 교육, 특히 법학교육
 - 1. 대학의 성립과 법학교육
 - 2. 로마의 법학교육
 - 3. 중세 대학의 성립
- III. 볼로냐 대학
- IV. 파리 대학
- V. 중세 대학들을 종합하여
 - 1. 볼로냐 대학이 중세 최초의 대학인 이유
 - 2. 자치, 자치도시, 자치대학
 - 3. 대학은 학문의 장 ?
 - 4. 볼로냐 대학 유형, 파리 대학 유형
 - 5. 맺는 말 : 볼로냐 대학도 아니고 파리 대학도 아니라면

[국문요약]

현존하는 서구식 대학교육의 기원은 중세 유럽에 있다. 그 이전 시대에도 상대적 의미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했지만 중세 유럽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자치단체로서 사회 세력화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중세의 대학들은 중세의 양대 권원이라고 할 교황과 신성로마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yhkimlaw@yonsei.ac.kr.

이 글은 2007년 6월 23일에 열린 법사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와 원고 심사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황제로부터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을 통하여 실세화하였다. 교황과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은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시켜주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곳이었다. 그런 까닭에 교황과 황제는 대학을 자신의 편으로 두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대학은 그와 같은 세력구도를 이용하여 자치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런 한편, 중세의 대학에서 교육된 학문 분야 중에 대학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법학이었다. 대학이 등장하던 중세 성기에 유럽은 종교적으로 법 기독교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맞추어 교회법과 로마법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에 비례해 부와 권력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법과 로마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중세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 볼로냐 대학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학교가 확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세의 대학은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하는 곳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의 대학은 법학뿐만 아니라 신학이나 의학 등 중세의 고급 직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학문을 교육하는 곳이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후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중세, 법학교육, 로마법, 교회법, 신성로마황제, 교황, 유니베르시타스, 스투디움 제네랄레.

I. 시작하는 말

현재 세계의 도처에 존재하는 대학의 기원은 중세 성기에 해당하는 11세기 말 혹은 12세기 초의 유럽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¹⁾ 그런데 여기서 11세기 혹은 12세기는 “얼마나 이른 시기부터 대학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의미하지 않는다.²⁾ 대학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둔다면 유럽만 해도 플라톤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³⁾ 시각을 유럽 바깥으로 돌리면 인도, 중국, 혹은 어느 나라에 상당히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보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⁴⁾ 시대와 장소를 중세 유럽으로 한정시킨다고 하더라도 9세기경

1) F.C. von Savigny, *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Bd.2, 2 Aufl., 1834, S.157; Walter Rigg, “Them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3f.

2) “얼마나 이른 시기”에 대한 의식은 대학설립의 전설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트로이의 영웅 아에네아스의 후손인 브루투스가 영국의 왕이 되었을 때 설립한 것이라는 식이다. Rigg, p.7; 이석우, 『대학의 역사』(한길사, 1998), 209면.

3) <http://en.wikipedia.org/wiki/University> (최종 방문일 2007.9.29).

콘스탄티노플에 존재했던 학교를 최초의 대학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통설을 받아들여 11세기의 학교를 최초의 대학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그 대학 자체가 8세기경 유럽의 일부를 지배했던 이슬람 교육문화의 산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⁴⁾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11세기 말 혹은 12세기 초라는 시점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그때 유럽에 존재했던 고등교육기관을 오늘날 대학들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법학은 서양사학이나 교육학과 아울러 대학관련 연구물을 내놓는 대표적인 학문 분야에 속한다. 대학 자체가 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법학은 대학의 구조, 대학의 운영,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 등 많은 대학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학의 설립 그리고 시대적 변천과 관련해서는 법제사적인 고찰이 어울린다. 특히 대학 중에서도 법과대학은 대학의 발생사적인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하다.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볼로냐 대학이 법학을 교육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이후 설립되는 많은 대학에 법과대학이 설치되어 법학은 대학의 확대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 가지 동기에서 대학의 법제사적 의미 부분을 고찰하게 되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 대학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대학이 대학다워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대학의 제 모습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학이 발생한 시대적 상황과 이후 시대에 대학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파악하면 대학의 모습에 대한 일종의 판단기준 혹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동기는 대학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진정 지식추구만으로도 존속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현실은 왜 그러지 못한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중세의 대학이 순수학문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법학교육에서 시작된 점에 착안하여 대학 발전과 법학 발전을 연관 지어 고찰해보면 대학의 실제파악에 도움이 되는 어떤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http://www.cwr.utexas.edu/~bump/OriginUniversities.html> (최종 방문일 2007.9.29).

5) Rüegg, p.8.

II. 중세 대학 이전의 교육, 특히 법학교육

1. 대학의 성립과 법학교육

최초의 대학이 어디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살아남아서 다른 대학들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과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다.⁶⁾ 볼로냐 대학은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대학이다. 이에 비해 파리 대학은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이기는 하지만,⁷⁾ 성직자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했던 만큼 교회법 교육도 중요시하였다.⁸⁾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을 모범으로 해서 세운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에는 보통법 교육이 동업조합인 길드를 통해 대학 밖에서 행해졌지만, 고급 법률가를 위한 교회법과 로마법 교육만큼은 대학 안에서 행해졌다.⁹⁾ 이렇듯 초기 대학들의 성립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법학교육이 중요시되었음이 드러난다. 특히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의 성립 과정은 이 학교에서 법학교육이 차지했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 뒤에서 볼로냐 대학을 살펴 볼 때 언급하겠지만, 그 당시 볼로냐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이르네리우스(1055~1130)가 너무도 유명하여 학생들이 몰려들어 교세가 커졌으며, 결과적으로 볼로냐 대학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볼로냐 이전 시대 혹은 볼로냐와

6) Savigny, S.157; Riegg, p.6.

7) C.H. 헤스킨스·김호권 역, 『대학의 기원』(삼성문화문고 114, 1978), 40면; Monika Asztalos, "The Faculty of Theolog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412.

8) Antonio García y García, "The Faculties of Law",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403; 헤스킨스·김호권 역, 67면; 이석우, 책, 108면 이하. 그 결과 중세 말의 교회는 성직자의 교회라기보다 법학자의 교회로 되었다. 이광주, 『대학사-이념·제도·구조』(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95, 민음사, 1997), 215면.

9) Peter Moraw, "Careers of Graduat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250; R.C. van Caenegem, Judges, Legislators and Profess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61.

10)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123f.

동 시대에 오로지 볼로냐에서만 법학교육이 행해지고 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고만고만한 도시들에서 법학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다.¹¹⁾ 그렇다면 볼로냐 이전 시대 혹은 볼로냐와 동 시대에 존재했던 법학교육을 행하던 다른 도시의 학교들을 제치고,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 의문을 해결할 단서를 볼로냐 이전 시대의 교육과 볼로냐 대학의 교육, 특히 법학교육을 살펴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볼로냐 대학의 교육, 특히 볼로냐 법학교육이 가지거나 처했던 특성 혹은 특수한 상황이 볼로냐 대학을 최초의 대학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음에서 볼로냐 이전 시대의 법학교육과, 그 법학교육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 일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로마의 법학교육

중세에 대학이 생겨나기 전에도 교육기관은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 시대에는 주로 개인(그들을 교수로 부르든 교사로 부르든)에 의한 개인 별 교육이 행해졌다. 이에 비해 어느 정도 무리의 학생을 상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BC 387/385년경 플라톤(B.C. 429?~B.C. 347)이 아테네의 아카데메이아(academeia)에서 철학을 가르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¹²⁾ 철학도 법학과 연결되지만 법학교육과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변론술이다. 플라톤과 동시대인인 이소크라테스(B.C. 436~B.C. 338)는 이미 B.C. 392년경에 아테네 지역에서 변론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스 법정에서 변론서 작성자(logographer)로 활동하는 한편 사업가이기도 했던 이소크라테스는 변론에 매우 능했는데 변론술을 가르치면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변론술은 법과 정치에 필수적이기에 이소크라테스가 연 학교는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법학에 관한 한 이후의 교육의 핵심은 철학이

11) 현승중·조규창, 『로마법』(법문사, 2004), 196면; Rüegg, p.5f.

12) 이광주, 앞의 책, 19면 이하.

아니라 변론술이 차지하였다.¹³⁾ 나아가 변론술 중심의 교육은 교양교육 안에 체계화되었다.¹⁴⁾ 이른바 고대와 중세의 교양교육 교과목인 자유7학과(7 artes liberales) 중 3학인 문법·논리·수사학의 바탕이 된 것이다. 동 시기에 로마에서 행해진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다르게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물이 없다. 로마 상류층에 속하는 개인들이 그리스식 교양교육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이다.¹⁵⁾

그리스가 철학에 업적을 남기고 로마는 법학에 업적을 남겼다고 할 때 로마에서 법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형성되는 것은 법이 종교에서 구분되어 세속화되는 B.C. 3세기경이다. 이 시기는 공화정 전기에 해당하는데, 특히 B.C. 254년경에 대신관이 된 집정관 출신 코룬카니우스가 최초로 법학교육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그리고 그 후 코룬카니우스 외에 하나 둘 씩 법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팽창을 계속한 로마는 B.C. 202년을 구분선으로 하여 공화정 후기로 넘어가는데, 국가의 팽창에 비례해 법학자들도 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화정 후기에는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 무리를 이룬 법학자들이 법학의 조류라고 할 것을 형성하였다. B.C. 200년경부터 B.C. 150년경까지의 법학자들은 로마시민법의 싹(Gunabula Iuris Civilis)을 틔웠으며, 후일 이들은 선배라는 의미에서 베테레스(Veteres) 구노선이라고 불렸다. 이들의 사상적 바탕은 자유주의 계통의 고전적 스토아 철학이었다.¹⁷⁾ 이들의 뒤를 이어 B.C. 150년에서 B.C. 82년경에 활동했던 법학자들은 로마시민법의 정초자들(Fundatores Iuris Civilis)이 되었으며, 베테레스 신노선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사회연대적 스토아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¹⁸⁾ 그 다음 시기의 법학자들은 앞의 두 베테레스 노선과 다른 길을 가면서 신법학을 이루었다. 이 신법학 학자들은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법실

13) 최병조, 『로마법연구 (1)』(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93면.

14) Berman, p.132f.

15) 이광주, 앞의 책, 31면.

16) 현승중, 『로마법』(일조각, 1987), 20면; 최병조,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 - 로마 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 제45권 제3호(서울대학교, 2004), 142면.

17) 최병조,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234면.

18) 최병조, 앞의 책(주17), 235면;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06면.

증주의적 태도를 보였다.¹⁹⁾ 이 시기는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넘어가던 험난한 시기였던 것이다.

실제로 공화정기 로마의 법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법학교육을 받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들이 대부분 집정관이나 법무관 등의 직위를 경험한 정치실무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무를 통해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정기의 법학자들은 법정에서 심판이나 변호를 담당하는 실무가는 아니었다. 법학자라고는 해도 법학자인 것이 그들의 유일한 직업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을 법학자로 만들어주었던 동기는 그들의 법무에 관한 경험과 법학에 관한 관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정기 법학자들이 관직에 있는 혹은 관직에 있었던 지배계층이었던 까닭에 그들이 행한 법학은 자연히 권위적이며 범명망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법학자들만 지배계층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litigating class)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배계층이었다.²⁰⁾ 지배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계층끼리의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인 법학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자문을 해주었던 것이다. 필자는 공화정기 로마의 법학자들이 이처럼 관직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관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같은 급 계층 사람들의 법률문제에 자문을 담당하곤 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법학자들이 주로 법정이 아니라 막후에서 활동했던 점과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로마의 법학자들이 공법 영역보다 민사법 영역에 더 관심을 두었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직에 연관되어 있는 자가 관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동기에서 법학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로서는 공법(정치)보다 민사법 영역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한편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도 맞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정기 법학자들이 시기별로 법학의 조류를 형성했던데 비해 제정(원수정)기가 되면서 법학자들이 동시대에 병존하는 법학의 조류 즉, 학파의 대립을 보

19) 최병조, 앞의 책(주17), 240면.

20) Bruce W. Frier, *The Rise of the Roman Jur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272, p.276.

이기 시작하였다.²¹⁾ 학파 대립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공화파와 황제파의 정치적 대립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출신 법학교별 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계기가 어쨌든 진정한 사고의 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²²⁾ 학파의 대립이 진정한 사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프로쿨루스 학파는 공화정 후기의 신법학의 계보를 이었다고 평가하고, 사비누스 학파는 베테레스 신노선의 계보를 이었다고 평가한다.²³⁾ 어쨌거나 학파의 대립은 기원후 1~2세기경에 해소된다. 이 해소에 대해서는 로마의 정치가 원수정으로 안착되면서 공화파와 황제파의 정치적 대립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켈수스나 율리아누스 같은 훌륭한 법학자가 나오면서 서로의 견해를 수용하여 학파의 대립을 극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²⁴⁾ 어떻게 설명을 하든 훌륭한 법학자가 많이 존재했던 바로 이 1~2세기가 로마법학의 고전기이다. 관직을 겸하지 않는 전업 법학자(법학교수)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2세기경이다.²⁵⁾ 이 시기 법학의 중심지는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였다. 아울러 경제적 요충지인 베리투스에서도 법학이 발달하였다.²⁶⁾

3세기에 해당하는 212년경 카라칼라 황제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탈리아를 넘어 제국 전체로 확대시켰는데, 이는 로마의 법학이 로마편중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권의 확대는 소송거리와 법학자 혹은 법적 지식을 가지는 자에 대한 수요를 늘렸다. 그러나 250년을 전후로 로마법학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원수정에서 전주정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로마의 지식인들이 성향을 바꿔 법학 대신 종교(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이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졌다.²⁷⁾

21) 공화정 후기 법학자들의 계통도는 Frier, p.146을 참조하라.

22)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34면.

23)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33면 이하; 최병조, 앞의 책(주17), 242면.

24) 최병조, 앞의 책(주17), 244면.

25)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37면.

26) 최병조, 앞의 논문, 146면.

27) 현승중, 앞의 책, 28면.

전주정기에 들어서면서 법학은 더 이상 이전 시대와 같은 로마시민법 위주의 법학이 아니었다. 이미 4세기 들어 로마제국에서 법은 황제의 법인 칙법이 유일한 법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여 공법 혹은 행정법 영역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로마 소송도 국가가 법정절차와 심판절차를 모두 관장하는 특별심리절차로 바뀌었다.²⁸⁾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법학교육은 국가행정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되었다.²⁹⁾ 게다가 330년경에 로마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새 로마(Nova Roma, Nea Roma)인 콘스탄티노플로 바뀌면서 로마에서의 법학연구는 쇠잔해졌다. 대신 동로마 지역에서는 법학교육이 계속되었다. 그 전부터 있던 베리투스 법학교와, 425년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운 것으로 되어있는 콘스탄티노플 법학교가 동로마의 대표적인 법학교이다.³⁰⁾ 이들 법학교는 국가행정을 담당할 인재양성 기능과 황제에게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527년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들 법학교의 교수들이 관여하게 된다.³¹⁾

동로마 지역에서의 법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로마법학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나 로마법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483~565, 재위 527~565)이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하면 서로마를 먼저 떠올리지만 동서로마로 분리되었을 당시 로마의 정통성을 가져간 것은 동로마였고, 동로마 황제는 로마황제로서 로마제국의 부활을 원했다. 로마제국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복전쟁과 로마법대전의 편찬은 공통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27년에 즉위와 더불어 로마법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530년경에는 핵심부분이라고 할 학설회찬(Digesta)을 완성시켰다. 이 작업에는 편찬위원장인 트리보니아누스 같은 관료와 도로테우스 같은 법학교수 등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²⁾

28)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302면.

29) M. 카저·윤철홍 역, 『로마법제사』(법원사, 1998), 277면. 전주정기 로마제국의 법학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최병조, 앞의 논문, 145면 이하를 참조하라.

30) Berman, p.122; 최병조, 앞의 논문, 146면 이하; 카저·윤철홍 역, 위의 책, 372면.

31) 최병조, 앞의 논문, 151면.

한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적인 치적으로 인해 서로마 지역에 법학교육의 흔적이 하나 더 보태지게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로마제국이 망한 후 이탈리아와 그 오른쪽 지역에 들어온 동고트왕국을 정벌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로마제국의 영토를 회복시켰다. 이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로마 지역이었던 라벤나에 총독부를 두고 554년부터 자신이 만들게 한 로마법대전을 시행시켰다. 이를 계기로 서로마 지역 도시 중 전쟁으로 황폐해진 로마 대신에 라벤나가 로마법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³³⁾ 그런데 8세기경에는 동로마 제국의 라벤나 지배가 끝나고 라벤나는 교황령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후 라벤나에서 로마법 연구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불분명하다. 다만 로마법 전통이 강하던 라벤나에 10세기경에도 법학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한데,³⁴⁾ 그것이 6세기경에 로마법을 연구하던 그 학교인지는 불확실하다. 어쨌든 11세기경 동로마 세력이 라벤나뿐 아니라 이탈리아 지역에서 완전히 후퇴하면서 라벤나 지역에서의 로마법 교육은 쇠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게르만 법학교육에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인연을 가지게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일시적으로 로마제국의 영토를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동로마에서 이탈리아 지역의 점령지 모두를 제대로 관리할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 지역의 게르만 민족들은 동로마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이런저런 나라를 세우곤 하였다. 그 중에 한 때 큰 세력을 지녔던 나라로 6세기 말경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파비아를 거점으로 했던 롬바르트 왕국이 있었다.³⁵⁾ 롬바르트의 수도였던 파비아에는 게르만법 계통인 롬바르트법을 가르치는 법학교가 세워졌다.³⁶⁾ 파비아 법학교는 8세기 후반에 롬바르트 왕국이 쇠퇴한 후에도 살아남았다. 파비아는 신성로마제국의 이탈리아 거점도시

32)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79면 이하, 최병조, 앞의 책(주17), 209면.

33) Charles M. Radding, *The Origins of Medieval Jurisprudence*, Yale University Press, 1988, p.33.

34)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96면 참조.

35) 롬바르트 왕국=롬바르디아 왕국=랑고바르드 왕국; 568~774년 존속, 공국으로 나누어져 11세기말까지 존속.

36)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96면; 카저·윤철홍 역, 앞의 책, 432면.

로서 건재했고, 그 때문에 파비아 법학교의 교세도 흥했다. 그러나 10세기 중반 들어 파비아의 정치세력이 약화되면서 롬바르트법의 위세도 꺾이기 시작했다.³⁷⁾ 그렇지만 롬바르트법은 확실법인 로마법과는 달리 판사에 의한 법(judge-made law)으로서 게르만 민족의 관습을 판단기준으로 하기에 적합한 체제이었으며, 발달된 공증인 제도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³⁸⁾ 그런 이유로 롬바르트법은 롬바르트 왕국이 망한 이후에도 중세 봉건적 사회체계를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게르만 계통법으로서 일반법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1020년에서 1060년 사이에는 롬바르트법이 로마법을 인용함으로써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³⁹⁾ 여기서 로마법대전이 재발견된 1050년을 지나 1060년대에 롬바르트법이 우세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발견된 로마법이 곧바로 주도적 위치에 올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로마법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부터 중세 사회의 로마법 선호는 확인해졌고, 그에 비례해 롬바르트법은 쇠퇴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법학 중심 도시가 볼로냐이다. 바로 최초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볼로냐 대학이 설립된 도시다. 이러한 시간적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볼로냐 대학을 최초의 대학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 전부터 존재해온 교수와 학생들이 11세기말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라벤나와 파비아 대신에 볼로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11세기말 상승기의 볼로냐 법학교와 쇠퇴기의 파비아 법학교는 대립관계에 있기도 하였다.⁴⁰⁾ 필자는 이렇게 10세기 혹은 11세기의 파비아 법학교를 볼로냐 대학에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10~11세기경 라벤나, 파비아 등에 존재한 법학교들, 8~9세기 경

37) Radde, p.68.

38) Radde, p.24, p.44.

39) Radde, p.110f.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5세기에 독일이 로마법을 전면적으로 계수할 때 들어온 법 중에 이 롬바르트법이 상당량을 차지하게 된다. 최종고, 『서양법제사』(전정신판, 박영사, 2003), 182면 이하.

40) 현승중·조규창, 앞의 책, 196면.

콘스탄티노플, 파비아 등의 법학교, 5~6세기 경 로마, 콘스탄티노플, 베리투스, 라벤나 등에 있던 법학교 등도 역할의 측면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⁴¹⁾ 6세기 경 동고트의 라벤나 법학교와 8세기 경 롬바르트의 파비아 법학교가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같은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⁴²⁾ 어느 시대이고 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에 법적인 수요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라벤나와 파비아만 같은 역할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필자는 11세기말의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최초의 “대학”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대학으로 대우받는 것은 최초의 대학으로 대우받을 만한, 그 전의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른 그 어떤 특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에서 변호를 바꾸어 중세 대학을 성립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3. 중세 대학의 성립

1) 대학 발생 전 중세의 교육 상황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로마의 교육은 기독교화 하였다. 그리고 476년에 서로마제국 대신에 서유럽을 지배하게 된 게르만 민족은 발달된 교육 체제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대로 로마화와 기독교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6세기 이후 서유럽의 교육은 완전히 기독교화하였다. 이 시기 학문의 담당자는 성직자였고, 학문의 중심은 기독교 교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스콜라 철학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유7학과가 라틴계 성직자들에 의해 스콜라 철학의

41) 그룬트만은 중세의 대학을 그 이전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H. 그룬트만·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탐구신서 126, 1993), 83면 이하.

42) Radding, p.38.

기초교육으로 되어 존속되고 있었다. 즉 그리스에 뿌리를 두는 전통적인 방식의 개인교육인 교양교육이 단절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 혹은 교양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은 존속했고, 그로 인해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은 프랑크 왕국 카롤링거 왕조의 극성기를 이룬 칼 대제(742?~814, 768~814 재위)이다.⁴⁴⁾ 그가 추구했던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교육개혁이 핵심이다. 로마제국의 부활을 꿈꾸었으며 800년에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기도 한 그는 로마에서 행해졌던 자유 7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했다.⁴⁵⁾ 원래의 로마제국에 상응하는 커다란 제국을 이룬 그로서는 제국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터였다. 그는 실제로 왕궁 안에는 왕궁학교를, 지방에는 수도원학교와 교회학교를 세우게 하였다. 그러나 칼 대제가 로마제국의 부활을 꿈꾸었다는 것은 카롤링거 르네상스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14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비교할 때 8세기의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교육과 로마문화의 재건에서 멈추었던 것이다. 게다가 칼 대제 사후 843년경 프랑크 왕국이 독일(동프랑크, 신성로마제국), 프랑스(서프랑크), 이탈리아 지역으로 나뉘어 상속되면서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 정치적인 의미에서 로마의 정통성을 가져간 것은 신성로마제국이다. 동프랑크의 오토1세가 961년에 신성로마황제로서 대관을 받으며 독일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의 경영자가 되었다.⁴⁶⁾ 그런데 신성로마제국은 황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아닌 여러 게르만 민족들의 연합체에 머물렀다. 게다가 동프랑크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이름을

43) 이광주, 앞의 책, 35면.

44) 카저·윤철홍 역, 앞의 책, 422면, 주243~244.

45) 이광주, 앞의 책, 40면 이하.

46) 카저·윤철홍 역, 앞의 책, 423면, 주245.

차지하고는 있다고 해도, 바로 옆 서프랑크의 프랑스 왕국은 프랑크 왕계에 대한 적통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견제세력이었다. 그리고 교황은 신성로마황제 대관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유럽 지배에 관한 한 황제의 경쟁자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성로마황제는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를 합리화시켜줄 방법을 법(특히 유스티니아누스법)과 법학에서 찾게 되었다.⁴⁷⁾ 종교에 바탕을 두지만 종교의 틀을 넘은 중세 교황도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방법을 신학과 법학(특히 교회법) 양자에서 찾고 있었다. 신성로마황제로 대변되는 세속군주들과 교황으로 대변되는 교회 조직은 중세 지식인의 주된 수요자였다.⁴⁸⁾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적당한 지식인 공급처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도시에 있는 학교(대학)에서였다.

11세기경에 도시에 지식인이 몰려있었던 것은 중세 사회의 안정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상업의 부활로 인해서이다. 인구 증가와 상업의 부활로 인해 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생겼고, 도시 사람들도 등장했다. 중세 농촌이 여전히 영주의 지배 아래 있었던 데 비해, 중세 도시들은 자유를 누리는 자치도시였다. 중세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폐가 필요하게 된 영주들은 도시로부터 금전을 받는 대가로 도시에 자치를 허용했던 것이다. 자치를 누리는 중세 도시들은 상업적 기반의 특성상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렇기에 도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도시의 자유는 도시 인구의 증대를 불러왔다. 자치 도시의 발달은 발달된 수준에 맞는, 혹은 도시를 더 발달시킬 능력을 갖춘 새로운 지식인층을 필요로 했고, 도시는 그에 맞추어 스스로 지식인을 배출해 냈다. 도시의 자유스런 분위기는 도시 출신의 도시에 기반을 두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신세대(moderni)로 자처하며 재속성직자나 번역가 또는 교사(교수)로서의 일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교육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도시를 찾아 움직였다.⁴⁹⁾

47) Paolo Nardi, "Relations with Authorit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78.

48) 이석우, 앞의 책, 103면; García, p.388; Nardi, p.79.

2) 중세 대학 성립의 동인

중세 대학의 성립 동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크게 중세 대학교육의 실용적이고 직업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과,⁵⁰⁾ 중세인의 지적 동기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뉜다.⁵¹⁾ 직업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의 근거는 최초의 대학이라는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 각각 법률가와 성직자라는 중세의 고급 직업에 관련된 학교라는 사실 자체가 대학의 목적을 옹변해준다는 것이다. 중세에서 대학교육이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된 실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서민 출신이 대학교육을 통해 중세 제후들의 고문관이 되었으며, 가난한 귀족 출신은 대학교육 덕분에 교황이 될 수도 있었다.⁵²⁾ 이에 비해 중세 대학의 성립의 동인으로 지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만약에 대학에서 직업교육적인 측면이 그리도 중요했다면 중세에 보편적이었던 직업교육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길드조직으로 관철되었으리라고 지적한다.⁵³⁾ 그리고 12세기 초에 대학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기록에 남은 유명 인물들을 제외하면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어떤 직업적 보장이나 대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고 반론을 편다.⁵⁴⁾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 이래로 자유⁷학과 중심의 교양교육이 행해져 왔으므로 중세가 된 들 전통적인 7과목으로 충분하지 대학이 생겨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세에 법학이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학문의 틀을 넘어 새로운 지적 활동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⁵⁾

49) 이석우, 앞의 책, 37면; Rüegg, p.10.

50) 예를 들어 Grundmann 같은 학자. Rüegg, p.10.

51) 예를 들어 Cobban, Sothorn, Stone 같은 학자. Rüegg, p.11; 이석우, 「서양 중세대학의 형성과 전개 - 내적 동인과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53호(1997), 1면. 자세한 것은 이석우, 앞의 책, 44면 이하를 참조하라.

52) 그룬트만·이광주 역, 앞의 책, 37면; Moraw, p.249. 본문에서 예로 든 교황은 피우스 2세(1405~1464, 1458~1464 재위)를 말한다. 물론 법과대학 출신의 교황은 이 이외에도 많다.

53) 이석우, 앞의 논문, 2면.

54) 이석우, 앞의 논문, 3면; Moraw, p.246.

55) 이광주, 앞의 책, 56면 이하.

아마도 그 두 가지 모두가 대학 발생의 동인일 것이다.⁵⁶⁾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의 동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 그 근거는 중세 대학의 성립이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에 따른 도시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⁵⁷⁾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을 계속적으로 흡수할 곳들이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한편 고도의 학문성이 중요했다면 기존의 교육을 담당해왔기에 나름대로 교육체계가 갖추어져 있던 수도원 같은 곳에서 계속 학문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교육이 발전한 것은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도시 경제를 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육이 경제를 축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이 교육인 한 학문적인 색채를 강하게 갖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의 모든 대학에서 순수 학문적인 색채의 교양교육이 행해졌다. 그러나 그 교양교육은 법학이나 신학 같은 고등의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교육으로서의 기능이 컸다. 중세 대학이 법학과 신학, 그리고 의학 같은 직업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대학의 실용적이고 직업적인 측면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학을 뜻하는 표현들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유래된 유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는 본래 다수의 사람 혹은 사람의 집합체 정도의 의미를 가졌으며, 어느 경우든 장소를 가리키지는 않았다. 유니베르시타스가 교사나 학생들의 조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2~13세기경이다.⁵⁸⁾ 그러나 이때에도 유니베르시타스는 교수나 학생들의 조합에 전용된 표현이 아니라, 길드나 자치도시 같은 단체들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유니베르시타스는 독립되어 사용되지 않고

56) 이석우, 앞의 논문, 3면.

57) Radding, p.88f.

58) Berman, p.124; 이석우, 앞의 책, 63면 이하.

교수조합(*universitas magistrorum*)이나 학생조합(*universitas scholarium*)처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⁵⁹⁾

우니베르시타스라는 표현 자체에 학구적인 색채가 없다면, 대학을 지칭했던 표현 중에 학구적 색채를 가졌던 단어는 스튜디오 제네랄레(*studium generale*)이다.⁶⁰⁾ 어원상 *studium*이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과 연결되고, *generale*는 보편적이라는 것과 연결된다. 스튜디오 제네랄레라는 표현이 대학을 지칭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설이 없다. 대학에 스튜디오 제네랄레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당대에 대학이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학도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하던 장소(*quasi de omnibus partibus mundi*)로 인식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⁶¹⁾ 이에 비해 스튜디오 제네랄레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는 때가 대학이 최초로 성립하던 즈음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던 즈음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스튜디오 제네랄레는 교황의 세력권 내에서 학문적 보편성을 이룬 대학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⁶²⁾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 1088년을 설립년도로 하고 있는데 비해, 교수나 학생들의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2-13세기경이라면,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의 볼로냐 대학은 대학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의 경우에 일정한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14세기경이니,⁶³⁾ 11세기 말 볼로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외형은 고정된 교육 공간도 없이 그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소집단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볼로냐 대학 이전에도 일종의 고등교육은 행해지고 있었다고

59) 이광주, 「중세대학에서의 자유의 문제」, 『서양사론』 제29·30호(1988), 162면, 주6.

60) Rüegg, p.6.

61) Nardi, p.90f.; 이석우, 앞의 책, 65면; 이광주, 앞의 논문, 162면 이하.

62) Jacques Verger, "Pattern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35f.

63) Aleksander Gieysztor, "Management and Resource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137.

할 때, 볼로냐 대학의 교육은 볼로냐 이전이나 동시대의 다른 교육과 별다른 구별할 점이 없었을 수도 있다. 결국, 나중에 볼로냐 대학이 성립되었기에 11세기말의 볼로냐 대학을 대학의 초기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대학은 대외적으로, 즉 도시, 국가, 그리고 교황에 대해 어떤 세(결국은 유니베르시타스)를 이를 만큼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에 대학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소집단이 커져 어느 정도 세를 이루었을 때 교황이나 세속군주에 대해 자신들의 집단이 학문 목적의 유니베르시타스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학생조합(*universitas scholarium*) 중심의 볼로냐 대학이든 교수조합(*universitas magistrorum*) 중심의 파리 대학이든 대학과 관련된 초기 문서에 학생조합이나 교수조합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도들의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라고 등장하는 것에⁶⁴⁾ 주목하려 한다. 이는 두 가지 시각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대학이 처음부터 이해관계에 따라 학생조합과 교수조합으로 나뉘어 조직화되었지만,⁶⁵⁾ 대학의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로 된 공동체로 보일 필요가 있어서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도들의 공동체라고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대학이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도들의 공동체로 성립한 것이 먼저이고, 이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으로 나누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전자가 볼로냐 대학이 학생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파리 대학이 교수중심 대학으로 발전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어울리는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학이 구성원끼리의 이해갈등이 별로 없거나 적었을 소규모 교육집단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최초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유니베르시타스의 형태로 성립되었다고 할 때 유니베르시타스와 스투디움 제네랄레가 15세기경에 동의어가 된다는⁶⁶⁾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64) Rilegg, p.8; Verger, *Patterns*, p.37; 이광주, 앞의 책, 97면.

65) Berman, p.124f.; 이석우, 앞의 책, 110면; 이광주, 앞의 책, 104면.

12~13세기에 대립을 보였던 학생조합과 교수조합의 대립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15세기경이기 때문이다. 15세기경에는 학생조합이 우위였던 볼로냐 대학에서든 교수조합이 우위였던 파리 대학에서든 대학의 주도권이 도시정부 혹은 국가로 넘어갔으며, 유니베르시타스는 그 합의하는 바를 잃고 그저 대학을 지칭하는 명칭 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게다가 15세기 이후에 웬만한 유럽의 도시마다 존재하게 된 대학은 국가나 사회가 대학만의 특권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할 만큼 특별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었다. 대학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관들 중에서 고등교육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⁶⁷⁾

Ⅲ. 볼로냐 대학

볼로냐 대학의 홈페이지가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듯이 볼로냐 대학은 유럽 최초의 대학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다.⁶⁸⁾ 그러나 그 홈페이지 혹은 다른 대학사 연구가 밝히고 있는 1088년이라는 설립년도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 대학이 1088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19세기에 대학역사위원회가 했던 계산에 의한 것이다.⁶⁹⁾ 그 계산에 따라 볼로냐 대학은 1888년에 성대한 800주년 기념축제를 거행했다. 그런데 그 행사는 단순한 개교기념 행사가 아니었다. 신성로마제국과 교황령 그리고 노르만족, 스페인 등의 지배로 인해 지역적 분할 상태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탈리아가 1861년에 드디어 통일을 이루고, 1870년에 로마까지 탈환한 후 서양세계를 상대로 역사적 자존심을 선언할 자리로 마련한 행사였던 것이다.⁷⁰⁾ 어쨌든 사람들은 볼로냐 대학의 설립년도가

66) 이광주, 앞의 논문, 162면, 주6.

67) Nardi, p.104.

68) <http://www.eng.unibo.it/PortaleEn/University/Our+History/default.htm> (최종 방문일 2007.9.29).

69) 볼로냐 대학도 433년경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설립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Savigny, S.164.

1088년이라는 데에 별로 토를 달지 않는다.⁷¹⁾ 중요한 것은 1088이라는 숫자보다, 볼로냐 대학이 실제로 중세 대학들의 모교(alma mater)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⁷²⁾

대학의 발생기로 추정되는 11세기말의 직전으로 올라가면 이 시기 중추적인 교육기관은 수도원 학교 및 주교좌 교회학교이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들과는 별도로 문법과 웅변 교육을 시키던 자유학교 혹은 세속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들은 꽤 인기가 있었다. 문법과 웅변 교육은 법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기본이었는데,⁷³⁾ 11세기 도시에는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⁷⁴⁾ 11세기 들어 경제가 부흥하고, 자치도시들이 발전하고, 여러 세속군주들과 교황의 세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법률가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켜 놓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법률가 수요의 증대, 그에 따른 법학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법학교육 중심의 볼로냐 대학의 성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확보된다. 그렇지만 그 연결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문법과 웅변 위주의 교육은 법학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은 될지언정 법학교육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볼로냐 대학에서의 공증업무(ars notaria) 교육이다. 후일 볼로냐 대학이 로마법과 교회법 교육으로 유명해졌을 때조차도 볼로냐 대학의 인기 유지에 한 몫을 했던 것이 공증업무 교육이다.⁷⁵⁾ 그런데 공증업무 교육이란 서류작성기술(ars dictaminis)을 가르치는 것이라 딱히 법학이라고 보기 곤란한 면이 있다. 필자의 생각에 볼로냐 대학이 이런 기술적 법교

70) Riegg, p.4.

71) 이탈리아 남부 상업 도시인 살레르노의 의과대학이 최초의 대학일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한데 이 주장 또한 이론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볼로냐 대학과 마찬가지로이다. Riegg, p.6; 이석우, 앞의 책, 93면 이하; 헤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18면.

72) Savigny, S.157; Riegg, p.6.

73) 김동구, 『중세대학의 설립과 발전』(교육학연구 078, 문음사, 2003), 29면 이하.

74) Radding, p.92.

75) García, p.397; Verger, Patterns, p.41. 같은 기술을 대학에서 배울 때의 장점에 대해서는 Riegg, p.22를 참조하라.

육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런 기술적 법교육만을 위해 대학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다. 기술적 측면의 교육은 중세 직업교육의 일반적인 형태인 길드를 통해서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⁷⁶⁾ 그렇다면 결국 볼로냐 대학은 기술적 법교육을 넘어 고급 법학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교양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교회조직과 교회법에 관해서도 지식을 가져야 했고, 로마법도 터득하고 있는 법률가를 이전의 자유학교나 세속학교에서 길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법관련 교육이 행해지던 볼로냐 시에 고급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그 교육이 체계화되고 확대된 것이 볼로냐 법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이 대학을 가져온 것이다.⁷⁷⁾

법학이 대학을 가져왔다면 그 다음은 왜 볼로냐인가가 의문이다. 11세기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이 법학의 발전에 유리하게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법학이 볼로냐에서만 발전했을 리는 없다. 실제로 그 당시 볼로냐 말고도, 라벤나, 파비아, 로마 등의 도시에서도 법학교육 혹은 법학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⁷⁸⁾ 그렇다면 여러 도시 중에서 볼로냐가 최초의 대학이 된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볼로냐 대학을 들여다보자.

볼로냐 대학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법학의 등불(*lucerna iuris*)로 불리는 이르네리우스(*Irnerius*, 1055~1130)라는 학자이다.⁷⁹⁾ 그는 본래 인문학교수였으며, 후에는 법학교수를 겸했다. 그가 유명한 법학교수가 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르네리우스가 태어나기 바로 전쯤인 1050년경 아말피에서 말로만 전해지던 로

76) 영국 보통법의 교육은 동업조합(길드)을 통해 행해졌다. Caenegem, p.61; Berman, p.163.

77) Berman, p.123f., 특히 p.160.

78) Radding, p.97f.

79) Radding, p.116, p.159; Berman, p.123. 근래 와서 1088년이라는 볼로냐 대학 설립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인물이 이르네리우스의 스승인 페포(*Pepo*, *Pepono*)이다. Radding, p.161. <http://www.eng.unibo.it/PortaleEn/University/Our+History/default.htm> (최종 방문일 2007.9.29). 볼로냐 대학의 성립에 이르네리우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의 스승이 활동하던 시대를 연결시키면 이르네리우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학이라고 부를 만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마법대전(학설휘찬)이 재발견되었다.⁸⁰⁾ 사실 로마법은 학설휘찬이 재발견되기 전에도 존재했다. 그렇지만 학설휘찬이 재발견될 즈음까지의 로마법은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 서로마제국 영토에 속해 있던 여러 지역의 로마법, 로마법의 영향아래 정비된 교회법, 게르만법과 융화된 세속법, 고유의 로마법이 관습법 형태로 살아남아 로마법이되 로마법이라고 불리지 않는 법 등등이 섞여 있는 형태이었다.⁸¹⁾ 이런 상태에서 학설휘찬이 재발견되자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학설휘찬이 재발견되었다고 하여 법률가들이 곧바로 로마법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재발견된 학설휘찬이 그 당시 실정법인 것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학설휘찬은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고 있었다. 재발견된 학설휘찬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학설휘찬에 대한 연구는 로마법뿐만 아니라 중세법 일반을 발달시킨 면이 있다.⁸²⁾ 어느 날 갑자기 종래의 중세법이 사라지고 로마법 위주로 법체계가 재편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법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로마법이 중세법의 주도적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새로 발견된 텍스트로 보강된 로마법이 롬바르트법을 제치고 중세의 일반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적어도 1110년경까지는 롬바르트법 중심으로 로마법 연구가 혼재하는 양상이 계속되었다.⁸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대전의 원전 텍스트가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게 된 상황이 불려온 변화는 확고했다. 이제 로마법 연구는 원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야만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새로 발견된 로마법대전의 해석과 교육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사람이 이르네리우스이다. 그는 인문학자답게 로마법대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변증법과 스콜라 철학을 이용했으며,⁸⁴⁾ 로마법대전 규정의 주석을 원전의 여백 또는 법문 행간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로마법학사상 주석학파라고 불리는 학파를 이루었다.⁸⁵⁾⁸⁶⁾ 이르네리우스가

80) 최병조, 앞의 책(주17), 227면 참조; Radding, p.113.

81) Radding, p.116.

82) Radding, p.110f., p.152. 11세기 중반 이후의 봉건법의 발전에 대해서는 Berman, p.297을 참조하라.

83) Radding, p.113f.

84) Berman, p.143.

주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낸 법적 언어의 체계성과 명료성은 그를 유명한 로마법학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로마법 연구를 통해 로마법대전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로마법은 비로소 롬바르트법과 결렬을 하고, 로마법만의 독보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⁸⁷⁾ 이르네리우스가 있는 볼로냐 대학의 로마법 연구업적은 매우 높이 평가되었고, 이에 로마법 연구를 위해 유학생들이 유럽 각국에서 볼로냐로 몰려들었다. 당시 볼로냐에서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수는 대략 1천명 수준이었다고 한다.⁸⁸⁾ 유학생들은 5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각국으로 귀국한 후 본국법의 발전과 로마법의 전파에 기여하였다.⁸⁹⁾ 그리고 이는 현대 서유럽의 민법이 로마법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⁹⁰⁾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법학과 대학의 발전의 연관이 고민될 수 있다. 이르네리우스가 사용한 텍스트나 교수방법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법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⁹¹⁾ 11세기에 재발견된 학설 휘찬의 텍스트는 고전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텍스트는 6세기에 만들어졌으면서도 1~2세기의 고전로마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만들어지던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면이 많아 유스티니아누스 사후 사용되지 않다가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더욱이 1~2세기의 고전로마법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의 사회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세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로마법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중세 성기의 경제발전과 맞아 떨어졌다. 법의 구체적

85) Berman, p.129; García, p.390f.

86) 그런데 이 주석학파는 로마법 연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롬바르트법 연구나 교회법 연구에도 주석의 방법은 애용되고 있었다. Radding, p.102, p.166; García, p.391.

87) Radding, p.116, p.159.

88) García, p.388은 그 당시 볼로냐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 수는 1천 명 정도였으며, 볼로냐시의 인구가 1만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Berman, p.124는 학생 수를 1천에서 1만 명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승중, 앞의 책, 36면은 1만 명으로 보고 있다.

89) García, p.403.

90) Radding, p.159.

91) Berman, p.127.

인 내용이 그 당시 사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성경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⁹²⁾ 이르네리우스의 강의는 로마법 텍스트 독해 위주의 상당히 학문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의를 다른 사람의 강의보다 인기가 있었던 것이 원전을 텍스트로 했기 때문이었다. 즉 이르네리우스와 볼로냐 대학이 유명해진 것은 중세에 일반적이었던 길드식 법기술 교육이 아니라, 그렇듯 학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⁹³⁾ 필자는 여기에 볼로냐의 법학교육이 대학교육으로 된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본다. 앞서 살폈듯이 법학교육은 볼로냐 대학 이전에도 존재했다. 볼로냐에서의 법학교육이 이전같은 단순한 법률가 양성교육을 넘어 학문적인 것이 되었기에, 볼로냐의 법학교육이 법과“대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볼로냐 대학과 관련하여 이르네리우스 자신도 제자를 길러 볼로냐를 로마법 연구 중심지로 유지시켰지만, 그의 사후 볼로냐를 법학교육 도시로 확고히 한 것은 12세기 중반에 볼로냐 지역에서 활동했던 교회법 연구자인 그라티아누스(Gratianus ?~1158?)이다.⁹⁴⁾ 그가 활동했던 12세기 중세는 교회법의 토대가 갖추어지고, 교회사법의 관료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교황권 및 교회의 권위 신장에 따라 교회법원 관할 사건과 로마교황청으로의 상소 증대로 교회법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에 맞추어 그라티아누스는 1150년경에 교회법규집(Decretum Gratiani=교회법 모순조령 조화해석집 또는 모순 교회법규의 조화해석집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을 펴내고 교육하였다.⁹⁵⁾ 이 교회법규집이 나오자 사람들이 교회법을 공부하려고 모여들었다. 중

92) Berman, p.122f., p.129.

93) 볼로냐 법과대학에서 가르쳤던 법학과목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Berman, p.127f.를 참조하라.

94) 이석우, 앞의 책, 102면; Berman, p.143f. 그라티아누스의 생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가 볼로냐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볼로냐 대학에서 교육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속설에 의하면 그는 볼로냐 지역의 한 수도원에서 교회법을 교육했다고 한다. <http://pantheon.yale.edu/~haw6/gratian.html> (최종 방문일 2007.9.29).

95) 그라티아누스 교회법규집은 法源으로 채집한 使徒敎命, 敎父의 여러 저서들, 로마시민법, 프랑크 각 지방의 국가법 등의 사이에서 서로 모순된 것은 검토하여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였기에 체계화된 교회법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컸던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법 연구가 바로 로마법 연구를 눌러버린 것은 아니다. 일단 이르네리우스의 법학 자체가 중세 신학에 사용되는 스콜라적 방법으로 로마법과 중세를 조화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와 교회법은 로마제국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로마법과 교회법 사이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로마법과 교회법의 교육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교황의 세력이 세속의 권력에 비해 커지는 동안은 로마법은 교회법에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⁹⁶⁾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로마법 연구로 유명한 볼로냐 대학에서도 교회법의 득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⁹⁷⁾

로마법과 교회법의 양법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획득한 볼로냐의 교육은 법학 전반의 부흥을 가져왔고, 법학의 부흥은 중세 학문의 위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학은 자유7학과의 적어도 기본 3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에 해당했으므로, 법학의 부흥은 결과적으로 자유7학과를 포함하여 학문 전반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이다. 13세기경 볼로냐 대학은 법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의과대학 등 여러 단과 대학들이 독립적으로 병존하는 커다란 대학으로 발전해있었다. 볼로냐 대학이 거둔 성공은 중세 사회에 대학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전반적인 학문의 부활은 중세의 각 도시에 대학 설립을 촉진시켰다. 로마법학사적으로 보면 12세기의 이르네리우스의 주석학과를 잇는 것이 13세기 말 이후의 주해학과인데,⁹⁸⁾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볼로냐 대학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생김 지 얼마 되지 않은 페루지아 대학이었다.

로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교과서류의 사적 법규집에 가깝다. 그렇지만 그라티아누스 교회법규집은 폭넓은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후의 교황령집과 합쳐져 1582년에 교회법전으로 재탄생되었다. 김상용, 『법사와 법정책 - 게르만법사, 교회법사, 독일민법학사 중심』(한국법제연구원, 2005), 144면 이하.

96) García, p.398.

97) 교황은 세속법 교육으로 유명하던 볼로냐에서 교회법이 가르쳐지는 데 대해 관심을 두었다. García, p.388.

98) 주해학과도 주석학과와 마찬가지로 변증법과 스콜라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주해학과는 주석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전에서 자유로웠다. García, p.391.

이는 우선 법과대학의 성공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이런저런 도시들에서 교육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볼로냐의 법학교육이 큰 성공을 거두며 대학으로 되었고, 그 결과 법과대학이 다른 도시로 전파됨으로써 거시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의 교육을 대학 급으로 발전시킨 셈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볼로냐 대학의 성공은 다른 한편으로, 건물도 시설도 없던 시절 대학의 성공이 훌륭한 교수라는 인적 자원에 의존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세의 어느 도시가 교육도시로 된 데에는 나름대로 그 도시가 지닌 특징점이 작용했겠지만, 이르네리우스나 그라티아누스가 볼로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다면 대학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중세의 학생들은 볼로냐로 공부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그 교수가 마침 볼로냐에 있기 때문에 볼로냐로 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⁹⁹⁾

사료를 살펴 볼 때 볼로냐 대학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가 등장하는 것은, 통설처럼 1088년을 개교한 해로 계산하면, 개교 후 대략 70년이 지난 1155년이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1122~1190)는 1155년에 로마에 가서 신성로마황제의 대관을 받게 되는데 그 여행길에서 볼로냐 법과대학의 4박사를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청에 따라 대학에 특권을 인정하는 학도들에의 특허장을 공포하고, 1158년에 그 특허장을 자신의 칙법집에 수록시킨다(Authentica Habita=Constitutio Habita).¹⁰⁰⁾ 이 특허장은 볼로냐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볼로냐 대학에 이어 생긴 다른 대학들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며, 재판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¹⁰¹⁾¹⁰²⁾ 그런데 프리드리히 1세가 이와 같은 내용의 특허장을 공포한 것

99) Radding, p.158.

100) Nardi, p.78.

101) 학도들에의 특허장 (1158년), 최병조 번역, <http://jus.snu.ac.kr/~romanist/lecture/roma/e04.html> (최종 방문일 2007.9.17).

皇帝 프리드리히는 諸 주교, 諸 수도원장, 諸侯, 諸 재판관 및 우리 宮宰의 심사숙고한 조언에 기하여 학문을 修學하기 위해 여행하는 學徒들 및 특히 신성한 시민법의 教授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비깊은 은혜를 부여한다. 즉, 그들 혹은 그들의 使者가 학문을 닦는 장소에 안전하게 가고 그곳에 안전하게 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朕이 생각컨대, 善을 행하는 자

은 법학자들과의 우연한 조우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럽에서는 세속군주와 교황과의 대립이 심했는데, 이 독일출신 황제는 대학이라는 지식인 집단을 자신의 편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프리드리히 1세가 하필이면 로마법의 4박사를 만나고, 특허장에 시민법의 교수 운운한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볼로냐 대학에서는 이르네리우스 이래 로마법 연구가 유명했다. 그런데 1150년 이후로 성직자 그라티아누스의 활동이 교회법 교육의 획기적 팽창을 가져오고 있었다. 교황과 대립하던 황제로서는 교회법의 위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로마법 연구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속세의 사인 관계를 다스리는 로마법의 관할 확충은 황제의 통치 영역 확충에 다름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신성로마황제는 로마제국의 부활을 꿈꾸었고, 볼로냐의 법학자들은 로마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을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황제의 로마법학자 보호는 황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다.¹⁰³⁾ 게다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 당시는 아직 신성로마제국의 핵심지역인 독일 지역 내에 대학이 없어 독일 지역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볼로냐로 가야 했

들은 朕의 칭찬과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학식에 의하여 世人을 계발하고 神과 神의 下僕인 朕에게 恭順하도록 朕의 臣民을 교도하는 저들을 특별한 가호에 의하여 朕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저들은 학문을 사랑하는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富를 잃고 곤궁하거나, 생명의 위험에 처해지며, 때때로 이유도 없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하여 신체에 危害가 가해지고 있으니, 누가 이러한 저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朕은 영구히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도 學徒들에게 감히 부정을 행하고 學徒들의 同鄉人의 채무로 말미암아 손해를 가지지 말 것을 命한다. 이러한 불법은 악습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들린다.

금후, 이 신성한 법률에 위반한 자는 그 손해를 填補하지 않는 한, 그 도시의 장관에게 4배 액의 벌금을 지급하고, 다시 하등 특별한 판결없이 당연히 파렴치의 죄에 의해 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됨을 알지이다.

그리고 學徒들을 법정에서 提訴하려는 자는 學徒들의 선택에 따라 朕이 재판관을 부여한 저들의 스승 혹은 박사 또는 도시의 주교에 提訴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재판관에 學徒들을 提訴하고자 企圖한 자는 訴因이 정당하여도 폐소하는 것으로 된다.

朕은 이 법률을 <칙법집> 제4권 제13장에 삽입하는 것을 命한다.

102) 학도들에의 특허장의 번역문은 헤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170면 이하에도 실려 있다. 이 책의 자료부분에는 교황이나 황제가 대학에 부여했던 특권과 관련된 문서들 몇 개와 여타의 대학기록 몇 개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103) 이석우, 앞의 책, 103면.

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독일 지역의 귀족이나 상류층 자제이므로 그들의 타국 생활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⁰⁴⁾

프리드리히 1세가 볼로냐 대학에 특권을 베풀던 시기에 교황 측의 사정을 보자. 중세 교황권의 극성기를 이노켄티우스 3세(1161~1216, 1198~1216 재위)로 볼 때 1155년경은 교황권이 점차로 확대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은 세속의 군주들의 견제 속에 선출되고 있었다. 교황이 될 자는 교회 내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세속의 군주들과 제휴를 해야 했으며, 이는 다시 세속군주들에 의한 교황 견제를 가져 왔다. 교황은 자신이 세속의 군주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신의 질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황이 세속의 군주보다 강한 물리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인재였다. 교황의 우위를 정당화하고, 이단의 발생을 막고, 교회법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등 대학 또는 대학 출신의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막중했다. 그러므로 교황은 대학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교황은 대학들에 자치체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고, 대학들의 보호자임을 자처했다.¹⁰⁵⁾ 이미 대학 발생 전에 수도원 학교나 주교좌 교회학교가 중세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던 터라 대학이 생긴 후 교황이 대학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대학을 둘러싸고 세속의 군주와 교황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황제와 교황은 대학의 지원자 혹은 보호자로 경쟁하였다.¹⁰⁶⁾ 이런 면에서 보면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신성로마황제의 접근이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1세가 멀리 있는 볼로냐 대학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었기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황제는 대학에 관한 관심을 거두었다.¹⁰⁷⁾ 그러한 사정에 덧붙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법을 공부한

104) Hilde de Ridder-Symoens, "Mobilit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290; 이석우, 앞의 책, 102면.

105) Rtiegg, p.16; García, p.388; Nardi, p.79f.

106) 교황이나 황제 등의 세속군주가 부여하는 특권을 확인해주는 문건(charter)을 칙허장, 특허장, 또는 특권장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107) Nardi, p.79; 이석우, 앞의 논문, 4면 이하.

다고 할 때 교회 쪽으로 진출할 길이 더 넓었기 때문에 볼로냐 대학은 황제로부터 특허장을 받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황제 편을 이탈하였다. 이후 대학에 미치는 교황과 황제의 영향력은 정치적 상황과 교황이나 황제의 개인적 평가에 따라 변하였다.¹⁰⁸⁾

볼로냐 대학이 교황이나 황제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볼로냐 대학이 위치하고 있던 볼로냐 시 때문이었다.¹⁰⁹⁾ 대학이 실세를 갖추지 못하던 시절에는 시가 대학에 관여할 일도, 대학이 시에 관여할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대학이 커가면서 도시의 경제가 대학에 의존하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고 시는 대학을 통제하기를 원했다. 이미 볼로냐 시는 자유도시 공동체인 꼬뮌(commune, comune)을 형성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시는 당연히 시에 위치한 대학도 통제할 수 있었다.¹¹⁰⁾ 시는 하숙비, 의복비 등의 물가를 조절했을 뿐 아니라, 특정 지역 출신의 한 학생이 채무를 지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동향 출신의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이에 1189년경부터 학생들이 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흔히들 학생조합이 교수조합에 대항하여 생겼다고 생각하지만,¹¹¹⁾ 실은 학생들이 볼로냐 시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¹¹²⁾ 물론 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학생조합의 성립시기와 관련해 학생조합이 그 전에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다만 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는 학생조합의 바탕이 된 동향단(natio, nation)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필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생조합이 볼로냐 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비로소 조직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이전의 동향단을 세력화하지 못한 친목모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108) Nardi, p.88f.; 이석우, 앞의 논문, 15면.

109) 이석우, 앞의 책, 100면.

110) 볼로냐 꼬뮌의 경우 1123년경부터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석우, 앞의 책, 108면.

111) Berman, p.125.

112) 해스킨스·김호권 역, 22면; 이석우, 앞의 책, 109면.

학생조합의 바탕이 된 동향단의 전개 모습이다. 동향단은 상당히 오랜 기간 출신지 별로 그것도 전공마다 따로 독자적인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고 볼로냐 출신 학생들은 동향단을 조직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탈리아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인지 볼로냐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향단을 조직하지 않고 있었다.¹¹³⁾ 볼로냐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을 학생들이 동향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동향단 자체가 학생조합이 될 수는 없으며, 학생조합은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생들이 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더 강하게 느꼈을 외국 출신 학생들이 동향단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 다음 단계로 동향단끼리 세력 대립과 협력을 거쳐 주도세력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주도세력이 된 동향단이 여타의 동향단과 동향단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섭하여 조직화시킨 것을 학생조합으로 보고 있다.

흔히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학생조합이 교수조합에 대항하여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수들이 학생들의 단체 형성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와 관련된 것이 1189년의 소위 충성서약 사건이다. 애초에 교수와 학생들은 1155년의 학도보호장에서 보듯이 학도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학생들이 동향단을 조직하면서 교수를 배제시킨 것도 교수여서 보다는 교수들이 대부분 볼로냐 시민이었기 때문이었다.¹¹⁴⁾ 그렇지만 볼로냐 시민이 아닌 교수들도 다수였고, 소속이 없는 이들의 처신은 힘들었다. 볼로냐 시민이 아니었던 교수들에게 그렇다고 특별히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소속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중세의 대다수 교수들은 그저 그런 가문 출신으로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통해 교수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다.¹¹⁵⁾ 결국 볼로냐 대학의 교수들은 병역이나 세금면제를 비롯하여 교수직의 여러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 볼로냐

113) Gieysztor, p.110f.

114) 조규린, 「대학사치의 비교사적 연구-중세」, 『법학연구』 제11집(전북대학교, 1984), 37면; 김동구, 38면.

115) Jacques Verger, "Teachers",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166.

시와 손을 잡았다. 그 내용은 볼로냐 시민만 볼로냐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볼로냐 시민이 아닌 교수들은 볼로냐 시민으로 귀화하고, 볼로냐 시에 충성서약을 하여야 했다. 볼로냐 시가 교수들에게 볼로냐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한 것은 교수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가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⁶⁾ 훌륭한 교수가 빠져나가면 학교가 쇠하고, 그렇게 되면 시가 쇠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볼로냐 시와 교수의 제휴라고 하는 것이 볼로냐 시민이 아닌 교수들이 볼로냐 시민이 되기로 서약하는 것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학생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다. 시와 대립을 보였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학도에 속하는 교수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시와 결탁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¹¹⁷⁾ 충성서약 사건과 관련하여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 교수들이 보기에 충성서약은 1155년의 신성로마황제의 학도보호장을 통해 확인된 학도들의 자유를 스스로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¹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직된 학생조합은 그렇다고 볼로냐 시와 바로 적대적 관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¹¹⁹⁾ 무엇보다 학생조합의 배경이 된 학생들과 볼로냐 시의 대립이 결국 학생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경제 문제, 특히 세금부과권과 세금감면권 등을 누가 가지는가였던 바 학생조합과 시는 오히려 결탁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조합은 시의 경쟁자로 변했다. 볼로냐 시는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했다. 대학이 시에 위치하는 만큼 시가 대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대학을 주도할 수 있기를 원했다. 학생들은 무기로서 수업거부와 이주를 감행하곤 하였다.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적 독립이나 그에

116) Nardi, p.81.

117) 이광주, 앞의 책, 81면; 이석우, 앞의 책, 113면.

118) Nardi, p.81.

119) 이석우, 앞의 책, 112면.

도움이 되는 특권 외의 이해다툼에 관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과 도시 사이에 분쟁이 심해지자,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도하였다. 그 당시에는 건물도 시설도 없는 대학이었으므로 교수나 학생이 대학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볼로냐 대학의 성공 이후 곳곳에 생겨나게 된 다른 대학으로 옮기든지, 볼로냐 대학의 성립사가 말해 주듯이 적당한 다른 도시를 터 잡아 강의를 열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¹²⁰⁾

볼로냐 시와 학생조합의 대립이 커지자 사태 해결에 교황이 개입하였다. 외형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의 보호자인 교황에게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을 갖췄다.¹²¹⁾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에 학생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던만 1217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1148?~1227, 1216~1227재위)는 학생 편에 섰다.¹²²⁾ 이로 인해 볼로냐 대학에서 학생조합의 힘은 더욱 커졌다. 커진 세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수들까지 통제하려고 나서게 되었다. 학생조합은 교수들의 수업과 임금까지 직접 통제하였다. 교수의 채용도 학생조합이 담당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 무기는 수업거부였다. 이 당시 교수들은 학생들이 지불한 수업료로 생활하였는데, 어떤 이유로든 수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¹²³⁾ 학생에 의한 교수 통제에 반기를 드는 교수들의 이주 가능성이 문제로 되자 학생조합은 교수의 이주를 공공연하게 금지하고 나섰다. 이제 떠나기도 어렵게 된 교수들은 학생조합의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를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수업 외적인 면에서 학생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¹²⁴⁾

볼로냐 대학의 경우 언제쯤에 교수조합이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155년의 학도들에의 특허장이나 그 이후의 교황과의 교신에서 드러나는 학도

120) 이석우, 앞의 책, 62면.

121) 황제는 정치적으로 도시(교편)를 무시하지 못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학생들은 교황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Nardi, p.79.

122) 이석우, 앞의 책, 113면.

123) 해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24면; 이석우, 앞의 책, 119면.

124) 이광주, 앞의 책, 84면.

들의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라는 표현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앞서도 논했듯이 필자의 생각에는 그 시기에는 아직 학도들의 공동체가 학생조합과 교수조합으로 이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그 후 언젠가 교수조합(교수단 collegium)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수조합이 학생조합에 대한 대항체로 생겼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¹²⁵⁾ 교수조합은 중세의 여타 직업들의 동업조합인 길드의 특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학사업 무인 학위수여 여부의 심사는 교수자격면허 수여 여부의 심사이기도 했다.¹²⁶⁾ 교수조합은 교수자격면허 수여 여부의 심사를 통해 교수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동업자에 의한 동업 후보자의 심사는 중세 동업조합의 전형적인 특성인 것이다. 물론 교수조합은 학생조합에 대한 대항체로서 기능도 했다. 특히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의 대립 과정에서 교수들이 교수자격면허 수여 심사권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은 크다.¹²⁷⁾ 그리고 교수자격면허의 수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매개로 경제적 권한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크다.¹²⁸⁾ 그러나 볼로냐 대학 교수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수자격면허 수여권 문제에 관한 한 교황은 교수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학생조합과 볼로냐 시 사이에 1217년에 발생한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황 호노리우스 3세는 기본적으로 학생 편을 들면서도 결정적인 주도권은 자신이 쥘었다. 1219년에 교황은 교수자격면허 수여권을 학생조합에게도 볼로냐 시에도 교수조합에게도 주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¹²⁹⁾ 교황이

125) Berman, p.125는 교수조합이 학생조합에 대한 대항체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126) 볼로냐 대학이 중세 최초의 대학인 이유를 학위수여(교수자격면허 수여)에서 찾기도 한다. 이석우, 책, 70면 참조. 그러나 볼로냐 대학에서 학위가 수여되기 시작한 것은 대학이 성립되고 바로가 아니라 대학에서 상당수의 졸업생이 배출되면서이다. 졸업생이 많아지면서 배출 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 수단이 학위수여(교수자격면허 수여)에 대한 심사였던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대학의 발전사에서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한 단계가 중요한 구분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위수여를 최초의 대학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한 것 같다. 비슷한 취지로 읽힐 수 있는 Nardi, p.91을 참조하라.

127) Berman, p.125.

128)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Savigny, S.221f.를 참조하라.

교수자격면허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교수자격면허가 교황의 세력권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중세 사회는 기독교를 전제로 하는 보편사회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유럽은 교황의 관할아래 있었다. 어디서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만국교수자격면허 *licentia ubique docendi*)이라는 것은 교황의 세력권(Papal Christendom)을 의미했기에 교황은 그 권리를 확보하려 들었던 것이다.¹³⁰⁾

결국 볼로냐에서 학생조합은 후에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그 실권을 볼로냐 시에 넘기게 될 때까지 교수조합을 통제했다. 볼로냐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일반적으로 당시의 볼로냐의 학생들이 이탈리아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나 파리 대학의 학생들과는 성분이 달랐다는 데서 찾고 있다.¹³¹⁾ 당시의 볼로냐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귀족층이거나 부유층이었고, 성직자를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으며, 나이도 많았다.¹³²⁾ 뒤에서 다룰 파리의 경우에는 대학이면서도 성직자적 위계질서가 있었지만 볼로냐 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그보다도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었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볼로냐 대학 이전에 비슷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볼로냐 대학 수준으로 볼로냐 대학처럼 방향을 잡은 것은 볼로냐 대학이 처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로냐 대학에게 롤 모델은 없었으며 그들이 새로운 대학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 대학 이전 단계의 고등교육기관과 볼로냐 이후 단계의 대학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살필 때, 전체적으로는 후자에 가깝겠지만 실제적으로도 후자에 가까웠으리라는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볼로냐 이전의 교육 역사에서 일반적인

129) Berman, p.126.

130) Rügge, p.17.

131) 이석우, 앞의 책, 120면 이하; 이광주, 앞의 책, 134면 이하.

132) 당시의 평균수명은 조기사망까지 포함하면 20세 정도였고, 조기사망을 제외하면 40세 정도였다. 이에 비교할 때 볼로냐 법과대학 학생들의 평균 연령대는 25세 전후였다. 특히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18세 정도였으며, 고급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세에 달했다. 이석우, 앞의 책, 120면, 296면; 이광주, 앞의 책, 77면.

형태는 개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최초의 대학은 그런 형태에 가까운 변형이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볼로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수들을 고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¹³³⁾

볼로냐의 학생조합은 스스로를 일종의 길드라고 보았다. 그리고 학생조합의 대표를 학두(學頭, 학생조합장 rector)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대학의 장에 해당하는 일들을 자신의 권한으로 하고 있었다.¹³⁴⁾ 24세 이상의 나이에, 볼로냐 시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선출자격이 주어졌던 학두는¹³⁵⁾ 1년¹³⁶⁾ 혹은 2년¹³⁷⁾ 임기로 학교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학교와 관련을 가지는 서적상, 학생들의 시중, 하숙집 주인 등에 관한 일을 주관하였고, 그들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가졌다.¹³⁸⁾ 그러나 교수들이 보기에 학생신분은 직업도 아니고, 학생인 한 아직 교수가 될 수 있는 박사도 아니므로 학생들에게는 길드를 구성할 자격이 없었다.¹³⁹⁾ 그런 한편 교수신분은 직업이므로 길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길드에서 마스터와 도제의 관계가 된다. 그러한 관계에서 학생이 대학의 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일반 길드에서 마스터와 도제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있었다. 일반 길드관계와 대학의 길드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일반 길드에서 도제들은 경제적으로 마스터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지만,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경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¹⁴⁰⁾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교수들이

133) Berman, p.126은 대학이 생기기 이전에 교회가 고등교육을 담당했었고, 그 당시 교수들이 교회에 대항할 수는 없었던 전통에서 볼로냐 대학 교수의 약한 지위의 근원을 찾고 있다.

134) 이런 맥락에서 볼로냐 대학의 rector를 학장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광주, 앞의 책, 73면; 이석우, 앞의 책, 121면.

135) Savigny, S.189; Berman, p.125.

136) Savigny, S.191.

137) Gieysztor, p.120.

138) Savigny, S.193; Gieysztor, p.120; Berman, p.124f.

139) 김동규, 앞의 책, 85면 이하.

140) Berman, p.125.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교수들의 경우 출신 성분이 별 문제 되지 않고 다만 교수로서의 능력이 그들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있었다.¹⁴¹⁾ 특히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신학 중심의 파리 대학과는 달리 교회의 성직자 체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그만큼 볼로냐 대학의 교수 중에는 그저 그런 배경의 세속인들이 많았다.¹⁴²⁾ 더욱이 볼로냐의 법학 교수들은 법률가라는 실무자들을 양성하고 있었기에, 그들 사이에 학문적 연대는 깊지 않았다.¹⁴³⁾ 많은 법률가 후보자들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혹은 보다 고위직으로 가기 위해 법을 공부했고, 그러기 위해 법학 교수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수들의 생계는 학생들의 손 안에 놓여 있었고, 사정이 그러한 한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¹⁴⁴⁾

13세기 동안에 볼로냐 대학은 학생조합의 주도아래 자치와 자유를 누렸다. 그렇다고 볼로냐 대학에 별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적 세력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를 누릴 수 있었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독일로부터 세력을 확장해 오는 신성로마황제와 끊임없이 다투야 했다. 황제는 자치도시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들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웠고, 그러기 위해 점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당시 신성로마황제는 프리드리히 2세(1194~1250, 1212~1250 재위)였다. 유난히도 교황과 대립각을 세웠던 황제는 교황이 보호자로 있는 볼로냐 대학에 대항시킬 목적으로 1224년에 황제가 지배하던 나폴리에 대학을 세우기도 하였다.¹⁴⁵⁾ 그리고 1226년, 1234년, 1239년에 걸쳐 볼로냐 대학에 폐교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

141) 그룬트만·이광주 역, 앞의 책, 39면.

142) Riegg, p.24.

143) Riegg, p.25.

144) 교수들에게 규칙적으로 봉급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온전한 관립대학인 나폴리 대학이 1224년에 세워지고 나서이다. 볼로냐 대학이 규칙적인 봉급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280년대에 들어서이다. Verger, *Teachers*, p.152.

145) Gieysztor, p.124. 프리드리히 2세가 세운 나폴리 대학은 같은 신성로마황제가 세운 대학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관립이라는 면에서 칼 4세가 세운 관립이면서도 자치를 추구하는 프라하 대학과 프라하 대학을 모범으로 하는 이후의 독일 대학들과 구분된다. 자세한 것은 그룬트만·이광주 역, 24면 이하를 참조하라.

기에 폐교령은 무위로 끝났다.¹⁴⁶⁾ 볼로냐 대학은 이해관계에 의거해 자생적으로 생긴 공동체이었기에 자체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한 폐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볼로냐 시는 학생조합이 조직되는 것, 그리고 학생조합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하자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였다.¹⁴⁷⁾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학생은 소비자였고, 도시는 공급자였으니 계속 부유해지는 것은 도시였다. 게다가 대학의 운영을 맡은 학생조합 집행부가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은 같은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면이 있었고, 또 그들의 신분이 학생인 만큼 졸업에 따른 잦은 집행부 교체는 장기적으로 대 도시 관계에서 학교 측의 입지를 감소시켰다. 그리하여 대학의 주도권은 14세기가 되면서 학생조합에서 도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대학의 재정도 도시로 넘어갔으며, 1350년경에는 교수의 급여권, 교수 채용권도 도시로 넘어갔다.¹⁴⁸⁾ 이와 함께 교수권이 신장했다. 도시는 수업과 학교 업무에 관한 한 교수들에게 맡겼던 것이다.¹⁴⁹⁾ 즉 교수조합의 힘이 세진 것은 학생조합의 세력이 약해진 반사적 효과이고, 학생조합의 힘이 약해진 것은 교수조합 때문이 아니라 볼로냐 시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14세기 중반을 전후로 해서 학생들의 세력이 약화된 것은 볼로냐 대학뿐만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소재 대학들을 비롯하여 중세의 초창기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¹⁵⁰⁾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다. 첫째, 대학의 약화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분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378년부터 1417년까지의 교회 분열은 교황을 보호자로 했던 초기의 대학들에 치명적이었다. 직접적으로 교황의 세력권 안에 있던 신학 중심의 파리 대학뿐만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특허장을 받거나 교황에

146) Savigny, S.178.

147) 이석우, 앞의 책, 115면, 127면.

148) 이석우, 앞의 책, 128면.

149) 이석우, 앞의 논문, 11면.

150) Nardi, p.94.

의해 세워진 대학들은 어느 교황의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난맥상을 보였다. 볼로냐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¹⁵¹⁾ 둘째,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 주요 도시마다 대학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볼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대학들이 생겨나던 시기였다. 제3 유형인 독일 대학들은 볼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 수준의 자치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대신 기본적인 대학 자치와 효율적인 국가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었다.¹⁵²⁾ 이탈리아 소재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사정도 학생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 같다. 셋째, 대략 1347년에 발생하여 1349년까지 유럽을 휩쓸면서 당시 유럽인구의 1/3(혹은 1/5)을 감소시킨 흑사병 사태가 학생 세력의 약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흑사병이 유럽에 미친 영향력이 워낙 크므로, 흑사병이 학생 세력의 쇠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흑사병이 학생과 시민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적인 감소는 학생 편과 시민 편 양자에 미쳤을 것이어서 학생들만의 세력 감소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학생은 대부분 외지 출신인이었다.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화살은 외지 출신인에게 향해졌을 것이며, 외지 출신인에 대한 경계는 대학도시에서 학생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⁵³⁾ 그렇지만 또 다시, 흑사병이 대학 세력 구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워낙 단기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신의 분노를 대학과 도시의 세력 다툼에 연결시키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는 흑사병 이후의 대학의 증가로도 설명된다. 흑사병으로 감소한 유럽 인구는 17세기가 되어야 원상회복을 이루는데 그에 비하면 중세의 대학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과 확산을 거듭하여, 1300년경에 15~20개이던 유럽의 대학은 흑사병을 거치고도 1500년경에는 70개 정도가 된다.¹⁵⁴⁾ 이는 후대의 독일 대학

151) Nardi, p.100f.; Verger, Patterns, p.55f.

152) 독일 대학의 성립 과정과 관련하여 김영희, 「독일 대학의 성립 과정과 독일 대학에서 자치, 자치, 그리고 개혁」,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중앙대학교, 2007), 479면 이하를 참조하라.

153) 이석우, 앞의 책, 95면; 이광주, 앞의 책, 90면.

154) 이석우, 앞의 책, 95면.

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바, 지배자들은 사회가 혼란할수록 대학을 통한 사회 분위기 개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다.¹⁵⁵⁾

학문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4세기 이후로도 볼로냐 대학은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주요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다.¹⁵⁶⁾ 그러나 이전과 같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청의 지배, 그리고 여러 공국들의 잦은 부침은 볼로냐가 유럽 제1의 대학도시라는 명성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었다. 유명했던 로마법 연구도 14세기경에 주해학과 시기를 넘어가면서는 바르톨루스(1313~1357)가 활동하던 페루지아 대학에 인기를 나눠줘야 했다. 대신 볼로냐 대학은 법과대학의 그늘에 있던 다른 학부들을 보충하였다.¹⁵⁷⁾ 14세기 중에 자유학과를 가르치는 인문학부가 보강되었고, 신학도 강의되기 시작했다. 15세기에는 고전학이, 그리고 16세기에는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이 꽃을 피웠다.¹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의미가 축소하면서 볼로냐 대학의 위상은 감소하였다. 다른 유럽 대학들이 통일된 국가를 배경으로 발전해 나가던 즈음에 볼로냐 대학의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이다.

IV. 파리 대학

대학이 생기기 전 중세의 고등교육은 교회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1세기 들어 도시가 발달하면서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주도권이 수도원보다 도시 교회 쪽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주된 장소도

155) 김영희, 앞의 논문, 486면.

156) <http://www.eng.unibo.it/PortaleEn/University/Our+History/Bologna+Art+and+History/default.htm> (최종 방문일 2007.9.29).

157) Verger, *Patterns*, p.50f.

158) <http://www.eng.unibo.it/PortaleEn/University/Our+History/Bologna+Art+and+History/default.htm> (최종 방문일 2007.9.29).

수도원 학교에서 도시성직자(재속성직자)가 담당하는 교회의 부속학교(특히 주교좌 교회학교)로 바뀌게 되었다.¹⁵⁹⁾ 파리 대학은 파리에 있던 주교좌 교회학교에 뿌리를 둔다고 한다. 파리에 주교좌 교회학교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 어느 학교가 파리 대학의 주역으로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¹⁶⁰⁾ 또한 언제 주교좌 교회학교들이 파리 대학으로 변화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¹⁶¹⁾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볼로냐 대학의 성립에 이르네리우스라는 탁월한 학자가 기여한 것처럼, 파리 대학이 유명해지는 데에는 아벨라르(1079~1142)라는 학자가 기여했다는 사실이다.¹⁶²⁾ 그는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신학에서 교수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파리 대학에 학문의 장을 열어 놓았다.¹⁶³⁾

그런데 도시 교회의 학교들은 성직자가 될 사람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중세 도시에서 교회가 거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성직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externi)의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가 도시에 있으니만큼 수요는 늘었고, 교육 내지 학교운영은 교회의 부수적인 업무로서의 수준을 넘게 되었다. 기존의 교회의 부속학교들만으로는 교육과 학문에 대한 당대의 수요와 수준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다 전문화된 교육전담 기관이 생겨났고,¹⁶⁴⁾ 파리의 경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파리 대학이다. 어쨌거나 파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이었다. 그렇지만 신학교육을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필요했으니 교양교육을 하는 인문학부가 또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159) 이석우, 앞의 책, 39면.

160) 이후로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존재한 파리 대학을 말하면 한 학교가 아니라, 그 이름아래 소속된 파리의 여러 학교들을 가리킨다. 1971년 이후 파리 대학이 제1 대학에서 제13 대학으로 나뉜 것도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161) 이석우, 앞의 책, 149면 이하.

162) 해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32면. 세속법학을 다루었던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이르네리우스라는 스타교수가 학교의 세를 이룬 감이 있다. 이에 비해 파리 대학의 경우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특성 때문인지 아벨라르라는 한 사람의 스타교수만으로 대학이 세를 이루게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벨라르로 인해 파리 대학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학생이 급속도로 늘었던 것은 사실이다.

163) 이광주, 앞의 책, 58면 이하; Asztalos, p.411.

164) 이광주, 앞의 논문, 160면; 해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16면.

대학에서 길러낸 성직자들이 고급 성직자가 되어 교회행정을 담당했던 까닭에 파리 대학에서의 신학교육은 교회법 교육을 동반하게 되었다.¹⁶⁵⁾

파리 대학이 파리에 있던 주교좌 교회학교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여도, 특정 주교좌 교회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리 대학 역시 볼로냐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대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파리 대학은 주교좌 교회학교 혹은 교회 조직과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로냐 대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파리 대학은 초창기부터 교회 측 감독기구로서 챠슬러 혹은 참사회를 가졌다. 그런데 파리 전역에 학교가 늘면서 교회의 부속기관인 학교는 학교가 주된 목적인 대학(스투디움 제네랄레 *studium generale*)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150년에서 1170년 사이에는 교수조합(*universitas magistrorum*)의 존재도 드러났다.¹⁶⁶⁾ 물론 교수조합이 나타난 후에도 챠슬러 혹은 참사회는 계속 존재했으며, 주교의 관여도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전처럼 학교를 일방적으로 감독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챠슬러 혹은 참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신이 파리 대학 신학부의 교수들이었다. 따라서 챠슬러 혹은 참사회는 교황이나 외부의 세력과 교수조합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⁶⁷⁾

파리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공문서에 처음 기록되는 것은 프랑스 국왕 필립 2세(1165~1223, 1180~1223 재위)가 1180년에 파리 대학에 학도보호장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이다.¹⁶⁸⁾ 초기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 후기의 대학들과는 다르게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발전 과정에 교황이나 국왕의 특허, 칙허, 혹은 특권 부여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필립 2세는 그 동안 봉건 영주들의 경계와 교황과 외세의 간섭 때문에 위축상태에 있던 프랑스 왕조의 왕권 신장을 추구했는데, 그는 당시 강한 사회적

165) Asztalos, p.411f.; García, p.403.

166) 조규린, 앞의 책, 43면.

167) 이석우, 앞의 책, 175면. 파리 대학의 챠슬러와 관련해서 크리스토프 샤를 & 자크 베르제르 · 김정인 역, 『대학의 역사』(한길 크세주 7, 1999), 23면을 참조하라.

168) 이광주, 앞의 책, 99면.

파급효과를 갖기 시작한 지식인들의 발언이 왕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대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¹⁶⁹⁾ 파리 대학은 중세의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 국왕은 파리 대학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치권을 보장하였다. 대신 파리 대학은 프랑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파리 대학은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로서 위치했다. 파리 대학의 국제적 성격은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런데 파리 대학에 우호적인 것은 국왕뿐만 아니라 교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당시 교황들은 새로운 이단설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학을 자기 관할에 두려고 하였다. 특히 유럽 최대의 신학대학인 파리 대학의 중요성은 컸다. 파리 대학은 자신의 위상의 교회 정치적 중요성을 이용하였다. 볼로냐 대학과는 또 달리, 파리 대학은 교황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름대로 왕권과 마찰을 줄이면서 교황으로부터는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다.¹⁷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국왕 필립 2세는 다시 1200년에 파리 대학에 특허장을 부여하였다.¹⁷¹⁾ 그러자 이에 교황 이노첸티우스 3세(1161~1216, 1198~1216 재위)는 파리 대학에 교수자격면허 취득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면제라는 특권을 제시했다. 교황측은 수수료 면제를 놓고 파리 대학 교수들과 교신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교수들의 조합을 유니베르시타스(universitas) 또는 콘소르티움(consortium)으로 불렀다.¹⁷²⁾ 이 일을 계기로 1215년경에 교황은 파리 대학에 특사 로베르를 보내 파리 대학 학칙 제정 작업을 지원하였고, 이 과정을 거쳐 파리 대학은 명실 공히 독립적인 대학체로 되었다.¹⁷³⁾ 그런데 파리 대학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의 대부분이 성직자였다. 파리 대학이 교황으로부터 여러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은 대학여서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성직자이기¹⁷⁴⁾ 면제와 면역을 받은 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리 대학이 가졌던 자

169) 이석우, 앞의 논문, 12면; 이광주, 앞의 책, 95면.

170) 이석우, 앞의 논문, 17면.

171) 이 특허장의 번역이 헤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173면 이하에 실려 있다.

172) 이석우, 앞의 책, 173면 이하.

173) 이석우, 앞의 책, 176면.

치 재판관도 파리 대학이 특히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대학이기에 세속의 일반 재판 관할에 속하지 않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⁵⁾ 요컨대 파리 대학은 성직자적 위계 구조에 바탕을 두었기에 학생들만의 자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보면 파리 대학이 교수중심 대학이라는 것도 볼로냐 대학이 학생중심 대학이라는 것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편 파리 대학이 신학 중심의 대학이라는 것은 파리 대학의 법학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미쳤다. 1217년에 볼로냐 대학과 관련하여 학생 편에 섰던 교황 호노리우스 3세(1148?~1227, 1216~1227 재위) 치하의 파리 대학 사정을 보면, 성직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탁발수도회 출신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그리고 교황을 설득하여 파리 대학의 종교성을 대폭 강화시켰다. 일단 파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 이전의 인물이므로 그의 사상은 이단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의학도 금지되었다. 중세의 의학은 이슬람 근원의 자연과학적 영향이 강했으므로 의학 또한 이단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⁷⁶⁾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법 연구가 금지되었다(1219년 *Super Specula*). 파리 대학에서 로마법 연구를 금지시킨 명목은 속세인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로마법은 신학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⁷⁷⁾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 특히 파리는 로마법 우세 지역이 아니라 관습법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세속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마법 교육에 대한 수요가 볼로냐 대학의 경우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로마법 연구의 금지는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필자의 생각에 이는 당시의 교황과 신성로마황

174) 그렇다고 모두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학은 교회대학은 아니다. 더욱이 기독교 사회였던 13세기 중세에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성직자로 부르는 호칭상 혼동이 존재했다. 그룬트만·이광주 역, 앞의 책, 41면, 44면.

175) 이광주, 앞의 논문, 167면, 주8; Nardi, p.85.

176) Nardi, p.77.

177) Nardi, p.85; 최병조, 앞의 책(주17), 13면; 헤스킨스·김호권 역, 67면; Walter Ullman, "Honorius III and the Prohibition of Legal Studie", *Juridical Review* IX, Edinburgh, 1948, p.177.

제의 세력 다툼과 교회의 인재 확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교황의 세력은 극성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당시 신성로마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1194~1250, 1212~1250 재위)는 아직은 교황의 대적자가 되지 못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실권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교황은 로마법이 황제권 혹은 왕권 주장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어 교회를 위협하고 들어올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로마법 금지는 의학의 금지와 아울러 재능을 보이는 성직자 후보군이 로마법이나 의학처럼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릴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파리 대학은 그 자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로 남아야 했다.

그런데 수도회 운동과 더불어 파리 대학을 장악한 탁발수도회의 종교성 강화 정책은 법학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 교황 측 입장에서는 탁발수도회 운동을 막지 않고 파리 대학과 같은 장을 열어 줌으로써 오로지 신학의 영역에 관심을 돌리게 하여 수도회 출신 성직자들이 교회 내 중앙집권 체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 혹은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런 한편 교황의 중앙 집권 체제는 교회의 업무에서 조직 관리의 비중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 이 시대 고위 성직자 중에는 교회법 전공 출신들이 많아지게 되었다.¹⁷⁸⁾ 그런데 교회와 교회재판소의 관할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로마법의 수요도 증대하였다. 교회가 세속적인 문제까지 다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교회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황은 파리 대학에서 금지시킨 로마법 연구를 쾰른 대학이나 오를레앙 대학에는 허용했다.¹⁷⁹⁾ 파리 대학에서 로마법 연구를 금지한 것도 쾰른 대학이나 오를레앙 대학에서 로마법 연구를 허용한 것도 교황인 것이다.

파리 대학의 경우에 1150~1170년 사이에 교수조합이 존재하기 시작했던데 비해 학생조합은 그보다 늦어 1210~1220년경에 가시화된다.¹⁸⁰⁾ 파리 대학의

178) 이광주, 책, 215면.

179) García, p.389; Gieysztor, p.111.

180) 이광주, 앞의 책, 115면 이하.

경우에도 학생조합의 시작은 출신지별 동향단이다. 동향단에는 대학의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인문학부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인문학부의 교수(교사)들 중 일부도 동향단에 참여하였다. 인문학부의 교수(교사) 중에는 동시에 다른 학부의 학생신분을 겸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급 학생들이 신학대학이나 법과대학 학생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신학이 강했던 파리 대학에서 그들은 이미 대부분 성직자들로서 굳이 동향단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성직자 위주의 파리 대학에서는 교황으로부터 비롯되는 파문 제도를 대학의 질서유지에 활용할 수도 있었다.¹⁸¹⁾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파리 대학 학생들의 동향단은 볼로냐 대학 학생들의 동향단처럼 세력을 키우기가 어려웠다.

1231년경에는 파리 대학의 학생조합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1165~1241, 1227~1241 재위)로부터 공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은 파리 대학과 파리 시의 대립과 관련이 있다. 대학 초창기부터 파리 대학은 파리 시, 특히 파리 시 총감 사이에 여러 차례 대립을 겪었다. 이는 볼로냐 대학에서 대학이 볼로냐 시와 대립을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228~1229년 파리의 한 술집에서 독일 귀족학생의 시종이 구타를 당하자 독일 학생들이 몰려가 술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파리 시총감을 앞세우고 독일 학생 숙사를 습격해서 학생 측이 사상을 입게 되었다.¹⁸²⁾ 이에 파리 대학 교수들이 국왕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1229~1230년 사이에 대해산을 감행하였다.¹⁸³⁾ 이때 앞장 선 사람들이 학생이 아니라 교수였다는 사실은 파리 대학이 볼로냐 대학과는 달리 학생중심이 아닌 교수중심의 대학임을 확인해주는 바가 되었다. 파리 대학의 강의 거부와 해산이라는 위협에 당시의 프랑스 국왕 루이 9세(1214~1270, 1226~1270 재위)가 대학 측과 타협하면서 학도들의

181) Nardi, p.82f.

182) 이석우, 앞의 책, 182면.

183) 이와 같은 학생과 시민 사이의 유혈 충돌은 1192년경에 처음 시작되어 이후 적잖이 벌어졌다. 물론 이러한 폭력 사건은 사건의 내용 자체보다, 그 사건이 계기로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석우, 앞의 책, 166면.

특권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파리 시총감은 국왕에 의한 대학 특권의 옹호자적 임무를 맡게 된다. 그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교황이 개입했다. 이 대립에서 파리 대학은 교황에 청원을 함으로서 시보다 우위 상태에서 타협을 이루었던 것이다. 123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파리 대학에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교서(Parens Scientiarum 학문의 보호자)를 내려주었다. 교황은 이 문서에서 파리 대학이 스스로 필요한 율령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교수조합뿐만 아니라 학생조합의 존재도 공인해 주었다.¹⁸⁴⁾ 결과적으로 파리 대학은 볼로냐 대학과 마찬가지로 13세기 동안에 대학의 자치를 누리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¹⁸⁵⁾ 그렇지만 파리 대학이 자치권을 가지게 된 것이 교황의 힘에 의존한 것이었기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치권을 잃고 교황의 규제에 따르게 되었다.¹⁸⁶⁾ 나아가 대학이 외부 세력인 교황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교황보다 국왕의 권력이 커지게 되는 경우 대학이 국왕에게 의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실제로 교회의 대분열 등을 거치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된 14세기경에는 국왕이 대학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¹⁸⁷⁾ 15세기에는 국왕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 파리 대학은 자치 재판권을 상실하고 국왕의 파리 고등법원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다.¹⁸⁸⁾ 이는 13세기에 파리 대학이 누렸던 특권이나 자치권과의 이별을 의미했다.¹⁸⁹⁾

15세기 이후 국왕의 관리 아래로 들어간 파리 대학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 상태는 파리 대학이라는 명칭 아래 여러 학교들이 유기적 관련성 없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¹⁹⁰⁾ 이와 같은 파리 대학에 프랑스 대혁명이 전면적인 변화를

184) 이석우, 앞의 책, 182면; 샤를&베르제르·김정인 역, 앞의 책, 23면. 번역문이 헤스킨스·김호권 역, 앞의 책, 178면 이하에 실려 있다.

185) 이석우, 앞의 책, 183면.

186) 이광주, 앞의 논문, 171면.

187) Nardi, p.104. 교회의 대분열이 대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Asztalos, p.435f.를 참조하라.

188) 이석우, 앞의 책, 197면.

189) 샤를&베르제르·김정인 역, 앞의 책, 35면; 이광주, 앞의 논문, 172면.

190) 이광주, 앞의 책, 332면.

가져왔다. 각종 동업조합(길드)을 봉건적 특권의 유산으로 혐오한 혁명의회는 1793년 교수조합에 기반을 두는 유니베르시타스(대학)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그 대신 혁명의회는 1794년에 Ecole Normale Supérieure, Ecole Polytechnique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창건하였다. 프랑스에서 유니베르시타스(대학)라는 명칭이 다시 사용된 것은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나서였다. 나폴레옹은 전적으로 실용적인 고등교육 개념에 기반하여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제국대학(Université Imperiale)을 1806년과 1808년에 창건하였다. 제국대학은 국가를 대신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지만, 대학의 운영은 완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¹⁹¹⁾

파리 대학이라는 학교 이름이 다시 사용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1893년과 1896년에 제정된 프랑스 교육 관련법이 대학 집합체에 유니베르시테(Université)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게 했고, 그에 따라 파리에 있던 학부의 통합체가 다시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1966년경에 프랑스의 대학 개혁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파리 대학은 전국 대학생의 30%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재학생을 가지게 되었다. 1971년에 프랑스의 대학 개혁안이 현실화되었고, 5개의 학부로 되어 있던 파리 대학은 13개의 학제간 대학이 되었다. 즉 파리 대학은 해체되었고, 대신 파리 시내와 시외에 파리 제1대학부터 파리 제13대학까지가 설치되었다.¹⁹²⁾

V. 중세의 대학들을 종합하여

1. 볼로냐 대학이 중세 최초의 대학인 이유

로마든 중세든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수립했고, 국가든 교회든 질

191) Paul Gerbod, "Relations with Authority",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3: Universitie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180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83.

192) <http://www.paris-sorbonne.fr/en/spip.php?article5> (최종 방문일 2007.9.29).

서를 담당하는 기관은 질서를 담당할 사람으로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용하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 법학교육은 항상 존재해왔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법학교육의 수준과 형태가 변했을 뿐이다. 법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수사나 변론술 교육, 혹은 법률 관련 문서 작성 기술 같은 기술적 법교육으로 충분한 시대가 있었던 반면, 언젠가부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세 성기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은 일반적인 법률가의 수요를 폭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급 법률가의 수요도 증대시켰다. 고급의 법률가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것은 개인별 혹은 소규모 차원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법학교육 시스템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변화는 자생하였다. 11세기경에 볼로냐에 모여든 법학의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학도들의 공동체를 이룬 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세의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다. 이렇듯 법학교육은 중세 대학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볼로냐 대학이 고급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형성되었다고 할 때, 역사를 살펴보면 고급 법학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 볼로냐 대학 이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고급 혹은 고등교육이라고 부르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대마다 상대적인 것이므로 10세기경, 8세기경, 5세기경, 혹은 그 이전의 법학교들을 법과대학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중세 혹은 그 이전의 여타 법학교 혹은 법학교육을 제치고 11세기말의 볼로냐를 최초의 법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볼로냐 대학이 이전 시대의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른,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적인 어떤 면을—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면이 볼로냐 대학으로 인해 심어진 것이겠지만—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중세의 대학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어떤 면이 바로 중세 대학의 자치단체적 성격이라고 본다. 최초의 중세 대학들은 그 이전 시대처럼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나 교회에 의한 관용교육 차원도 아닌,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만든 교육 자치단체인 학도공동체였다. 그렇기에 자치단체로 시작하지 않은 후대

의 대학들이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자치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2. 자치, 자치도시, 자치대학

볼로냐 대학이 고등교육을 행하는 자치단체라는 특성을 갖춤으로서 대학의 전형이 되었다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자치단체인 대학이 자치를 누리던 또 다른 주체인 상업 도시들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볼로냐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학이 최초로 성립된 곳이 꼭 볼로냐 시였어야만 했다는 필연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대학이 중세의 상업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도시들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된다. 볼로냐를 비롯하여 초기 대학들이 위치했던 도시들이 어떤 이유로 고도의 자치를 구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11세기경 유럽 사정, 특히 이탈리아 사정을 살펴야 한다. 5세기 후반에 로마제국을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이 세웠던 통일 국가인 프랑크 왕국은 9세기 후반에 지금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지역들로 나뉘었다. 이들 중 독일 지역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여러 제후들의 국가로 나뉘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 지역의 경우 비교적 단일하게 프랑스 왕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 지역은 북부의 신성로마제국 세력권, 중부의 교황령, 남쪽의 시칠리아 왕국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의 경우 자신들의 권위를 로마제국에서 찾았으므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 혹은 이탈리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 또한 자신의 권위를 베드로의 로마 교회에서 찾았으므로 로마와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유럽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황제들과 교황들은 역량에 따라 이탈리아를 세력권에 넣기도 하고, 그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탈리아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왕국이 들어섰다가 사라지고는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탈리아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들어서지 못했다. 대신 정치적 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할 능력을 갖춘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상업을 바탕으로 힘을 키운 도시들은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원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탈리아에 중앙집권적인 세력이 약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 그 독립과 자유를 거저 얻을 수는 없었다. 도시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치권을 사들였다. 그런 한편 중세의 도시들은 도시들끼리 통했다. 이탈리아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럽의 다른 상업 도시들도 자치도시로 성장하였다.

도시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는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들였다. 그런 도시들에서 법학교육이 발달하고, 대학이 성립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도시 입장에서 볼 때 초기 단계의 대학들은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대학은 도시가 가지는 문화적 측면이었고, 대학 구성원들에 의한 소비는 도시가 가지는 상업적 측면이었다. 문제는 도시라는 자치단체에 자리 잡은 대학이 성장하여 단체의 모습을 갖추면서부터 일어났다. 대학의 경우 구성원의 대부분이 소속도시 시민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대학의 구성원들은 도시의 특권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런 반면 대학은 공간적으로 도시에 위치했지만 그 도시와의 연결성은 필연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은 도시의 통제를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었다. 도시의 통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상대방인 도시의 성격과, 자신인 대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찾아낼 수 있었다. 즉 대학이 존재하는 도시들 대부분이 교황이나 황제 등의 세속군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아 자치를 누리고 있었다. 만약 대학이 도시처럼 특권을 부여받아 자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대학은 도시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세에 대학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도시에 특권을 부여하는 주체와 동일했다. 즉 교황이나 세속군주였다. 교황이나 세속군주가 도시에 자치단체로서의 특권을 부여했던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대학이 원한다고 바로 특권을 부여해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대학에 자치단체로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학이 어느 정도 자치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어

야만 가능한 얘기였다. 그리고 특권을 부여할 교황이나 세속군주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을 자치단체로 공인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해야 했다. 전자의 요건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출신 지역이나 대학내 지위에 기반한 모임들을 조직화함으로써 갖추어졌다. 이에 비해 후자의 요건은 특권을 부여할 주체측이 판단할 문제였는데, 교황이나 세속군주는 대학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는 것이 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자치단체로서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리하여 이제 도시라는 공간에는 도시와 대학이라는 특권적 자치단체가 병존하게 되었는데, 특권은 나누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학은 도시와의 갈등을 통해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확립해갔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본질로 되었다.

3. 대학은 학문의 장?

대학이 자치체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학문의 자유는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대학의 자치를 승인한 세력에 의한 학문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대학이 자치를 누린다고 하면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대학들이 추구하는 바가 중세식의 대학의 자치가 아닌 대학의 자유로 바뀌어져 있으며, 여기서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데 연유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중세의 학문의 자유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중세에 대학이 자치체가 된 것이 대학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나서이듯이, 대학이 학문의 장이 된 것도 대학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나서이다. 대학이 학문의 탐구만으로도 대학의 존재의미를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대학은 직업교육의 장에 가까웠다. 대학을 학문의 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초기 대학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대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 블로냐와 파리의 교육기관들이 나중에 대학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초창기로 소급하여 블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라고 부른다는 다소 어색한 설명

이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대학사적으로 중요한 초기의 대학들이 정확한 설립 년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통성을 가지는 이유가 기록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자생적이었던 최초의 대학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대학이 될 줄 몰랐던 것이다.

물론 중세의 대학은 애초부터 학문의 장으로 될 특성을 품고 있었다. 그 점이 길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중세의 일반적 직업교육과 대학에서 행해지던 직업교육의 다른 중요한 무엇이다. 길드를 통해 행해지던 직업교육은 해당 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이외의 학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대학을 통해 행해지게 된 직업교육은 점차로 학문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법학교육의 경우 이전과는 달리 그 교육이 인문교육 바탕 위에 고급과정으로 행해졌으며, 그러한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법학교육은 한층 더 학문화되어 갔다. 법이 길드가 아닌 대학에서 교육됨으로써 해서 학문으로서의 보편적 진리의 기준을 맞추어야 했던 것이다.¹⁹³⁾

이렇게 하여 중세 대학은 학문의 장이 되어 갔지만, 여기서 학문이 장이란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장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세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별다른 이슈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는 대학이 자치체였으므로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해서 새삼스레 학문의 자유를 의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곤 한다.¹⁹⁴⁾ 그러나 필자는 중세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중세의 학문이 종교에 의해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중세 대학이 처했던 그 통제받던 상황을 통제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여지가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그 여지는 중세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였다는 데 있다. 신을 정점으로 한 학문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학자들이 교회의 통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중세 학자들의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중세 교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단의 발생이었다. 교회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이단의 발생과 연

193) Berman, p.163.

194) 이광주, 앞의 논문, 174면.

결되지 않는 한 별다른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교황이 일정 대학에서 로마법 연구나 의학 연구를 금지했던 것도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원의 통제였다. 기보다 로마법이나 의학의 연구가 이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종교적 차원의 통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의 자유가 문제된 것은 근세 이후이다.¹⁹⁵⁾ 후기 중세를 지나 근세에 들어와 국가에 의해 세워진 대학들은 볼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 수준의 자치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전형은 성기 중세식의 학도들의 자치단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이 대학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자치수준의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문의 장이어야 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이 외부세력에 대항해 자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학문의 장이며, 역으로 외부세력이 대학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학문의 장인 것이다.

4. 볼로냐 대학 유형, 파리 대학 유형

현재와 이어지는 중세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다. 계속되고 있는 연구가 다른 어떤 대학을 최초의 대학으로 승격시킬지 모르지만 후대의 대학들에 미친 영향이라는 점에서 두 대학의 의미는 여전할 것이다. 그런데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의 추정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볼로냐 대학이 파리 대학보다 먼저임에도, 사람들은 파리 대학이 볼로냐 대학 뒤에 생긴 대학임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는다.¹⁹⁶⁾ 그 이유는 대학의 유형별로 볼 때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 각각 최초의 학생중심 대학이며 최초의 교수중심 대학이기 때문이

195) 이광주, 앞의 책, 376면, 주7.

196) 같은 취지의 Riegg, p.6. 14세기에 등장한 독일의 대학들을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에 비교하여 제3유형의 대학이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을 각기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부르는 일은 드문 것 같다.

다. 그런데 대학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이 두 대학의 성립기를 들여다보면 두 대학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두 대학 모두 성기 중세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며,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며, 교황과 세속군주로부터 자치단체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대학이 위치한 도시와는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두 대학 모두에서 학생들은 동향단을 바탕으로 학생조합을 만들었고, 교수들은 동업단체인 교수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학생중심으로 갔고, 한 학교는 교수중심으로 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 원인을 두 대학 학생들의 차이에서 찾아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볼로냐 대학은 법학, 특히 로마법을 주력 학문으로 했다. 볼로냐 대학의 초기 학생들이 로마법을 공부하려 몰려든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즉 볼로냐 대학의 학생들은 파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으며, 나이가 많았다.¹⁹⁷⁾ 반면 볼로냐 대학에서 로마법을 가르쳤던 교수들은 주로 속인이었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교수들은 생계비를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했다. 그에 비해 파리 대학은 신학을 주력 학문으로 하였으며, 신학교육을 위해 인문교육을 선행시켰다. 그러니까 파리 대학의 학생들은 성직자 후보군이었으며, 볼로냐 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다.¹⁹⁸⁾ 반면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들은 주로 성직자였고, 교수들의 생계는 기본적으로 성직록에 의했다.¹⁹⁹⁾ 요컨대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이 방향을 잡던 초기에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교수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비해 오히려 높았던 까닭에 대학이 학생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와 같은 설명에 찬동한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자생적인 대학이었으며, 교회를 배경

197) 이석우, 앞의 책, 120면.

198) 이광주, 앞의 책, 134면.

199) 이광주, 앞의 책, 129면. 파리 대학에서도 성직자가 아닌 교수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석우, 앞의 책, 177면.

으로 하지 않았기에 학생중심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볼로냐 대학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대학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볼로냐 대학은 볼로냐 대학 이전의 교육기관과 비슷한 모습을 거쳐 볼로냐 대학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초기 볼로냐 대학은 비록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이전 시대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교수들을 교육 목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했다. 교육의 수요-공급 구조에서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볼로냐 대학이 학생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파리 대학의 경우 신학교라는 특성상 교회질서를 배경으로 했던 데 비해, 볼로냐 대학은 교회질서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 파리 대학이 성직자적 위계질서를 학생들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볼로냐 대학은 교황과 직접 연결점을 갖는 신학 중심의 대학이 아니었기에 그런 수단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파리 대학의 경우, 학생이 교육을 받고 성직자가 된다고 할 때 인문학부 학생과 신학부 학생 사이는 학생과 교수 사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상급반 학생들은 인문학부 학생들의 교육을 일부 담당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이질성은 당연히 학생들의 단결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부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상하급 성직자 사이였다. 그 관계는 교황에게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로마법 교육이 중심이었던 볼로냐 대학의 경우에는 교황이 대학에 상당한 이해를 갖는 후원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신학 교육이 중심이었던 파리 대학의 경우에 교황은 성직자 계통도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였다. 성직자 후보군이 만든 학생조합이 성직자 조직의 최고지배자인 교황이나 그 대변자인 파리 대주교, 그리고 교수조합에 직접 맞선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렇기에 파리 대학에서는 교수조합이 학생조합보다 강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 당연했다. 더욱이 파리는 볼로냐보다 유럽대륙의 중심에 있는 더 큰 도시라서 한층 다양한 출신지들로부터 학생들이 모여든 까닭에 그만큼 동향단의 수도 다양했는데, 이는 학생조합 세력의 근원인 동향단끼리의 협력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볼로냐 대학의 경우 자치도시에 위치했고 간섭할 세속의 군주가 가까이 없던 것에 비해, 파리 대학은 국왕과 그의 군사력이 존재

하는 수도 도시에 위치했던 까닭에 국왕의 간섭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다. 설령 교황이 국왕을 견제하기 위해 학생조합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조합이 한 나라의 수도에서 국가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파리 대학이 볼로냐 대학과는 달리 교수중심의 대학 체제를 유지한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볼로냐 대학은 최초의 대학으로서 성공을 거뒀고, 볼로냐 대학의 성공은 유럽 전역에 대학의 성립을 촉진시켰다. 볼로냐 대학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후대 대학들의 모델이 되었다. 파리 대학도 볼로냐 대학이라는 모델을 가졌기에, 파리 대학이 한편으로는 볼로냐 대학과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는 볼로냐 대학과 비슷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이 각기 유형별로 각 대학을 대표한다고 하여도, 후대의 유럽 대학들을 놓고 본다면 볼로냐 대학보다 파리 대학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²⁰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파리 대학을 모델로 하였고,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을 이어 제3의 유형으로 등장하는 독일의 대학도 시작은 파리 대학을 모델로 하였으며, 미국의 대학은 영국의 대학과 독일의 대학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볼로냐 대학은 주로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대학들이 모델로 삼았다. 그나마 실제로 볼로냐 대학처럼 학생중심 체제를 이룬 대학은 이탈리아 내에서도 많지는 않았다.²⁰¹⁾

필자는 대학의 유형별 기원과 관련하여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의 대조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볼로냐 대학은 “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중세 대학 초창기에 나타난 아주 특별하고도 인상적인 형태를 가졌던 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요컨대 볼로냐 대학의 등장은 시대적 산물이었다고 봐야 한다. 중세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 대학이 처음 생겼다면, 그곳이 볼로냐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 대학은 아마 볼로냐 유형으로 갔을 가능성

200) Riegg, p.6; Nardi, p.90f.

201) Verger, *Patterns*, p.56. 볼로냐 대학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추구했던 것이 1222년도에 설립된 파두아 대학이다. Gieysztor, p.110.

이 크다. 그러므로 대학이 유럽 전역에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을 때는 볼로냐 대학식의 학생중심주의는 볼로냐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다른 도시와 다른 대학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볼로냐 대학의 의미를 절하해서도 안 된다. 볼로냐 대학의 의미는 여전히 크다. 볼로냐 대학은 최초의 대학으로서 후대에 설립된 대학들의 모교(alma mater)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볼로냐 대학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자치체로 성질을 규정짓도록 하는 전통을 수립해 놓았던 것이다.

5. 맺는 말 : 볼로냐 대학도 아니고 파리 대학도 아니라면

현재의 세계의 대학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볼로냐 대학도 아니고 파리 대학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들이다.²⁰²⁾ 그렇다면 지금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에 대한 고찰은 왜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대학이 시대의 요청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었으며, 시대의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의 개혁을 21세기의 화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개혁은 결코 21세기의 신상품이 아니다. 대학은 생겨난 직후부터 항상 개혁의 대상이었다.²⁰³⁾ 그렇기에 필자는 이 오래된 대학들에서 대학의 발생과, 대학의 역할과, 대학의 개혁과, 대학의 나아갈 길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에 대해 고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의 대학들이 자치를 대학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정체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가 대학의 정체성을 자치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 오래된 대학들이 남긴 산물이다. 게다가 이 오래된 대학들은 현재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대학이 누렸던 자치권의 가장 특별한 수준을 구현했었다. 필자는 이 두 가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00년쯤 전의 볼로냐 대학과 파리 대학을 현재에

202) 강치원,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 『역사비평』 제48호(1999), 101면 이하.

203) Rüegg, p.30f.

들여다 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치원,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 『역사비평』 제48호, 1999.
- 김동구, 「중세대학의 설립과 발전」, 『교육학연구』 078, 문음사, 2003.
- 김상용, 『법사와 법정채-게르만법사, 교회법사, 독일민법학사 중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김영희, 「독일 대학의 성립 과정과 독일 대학에서 자유, 자치, 그리고 개혁」,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 중앙대학교, 2007.
- 이광주, 『대학사-이념·제도·구조』,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95, 민음사, 1997.
- _____, 「중세대학에서의 자유의 문제」, 『서양사론』 제29·30호, 1988.
- 이석우, 『대학의 역사』, 한길사, 1998.
- _____, 「서양 중세대학의 형성과 전개-내적 동인과 외부 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53호, 1997.
- 조규린, 「대학자치의 비교사적 연구-중세」, 『법학연구』 제11집, 전북대학교, 1984.
-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 _____, 『로마법연구 (1)』,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_____, 「법학교수직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마 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 제45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4.
- 최종고, 『서양법제사』, 전정신판, 박영사, 2003.
- 현승중, 『로마법』, 일조각, 1987.
- 현승중·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2004.

2. 번역

- 크리스토프 샤를 & 자크 베르제르, 김정인 역, 『대학의 역사 (Christophe Charle & Jacques Verger, Histoire des Universités, 1989)』, 한길크세주 7, 1999.
- 헤르베르트 그룬트만, 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 (Herbert Grundmann, Vom Ursprung der Universität, 1964)』, 탐구신서 126, 1993.
- 찰스 호머 해스킨즈, 김호권 역, 『대학의 기원 (Charles Homer Haskins, The Rise of Universities, 1923)』, 삼성문화문고 114, 1978.
- 막스 카저, 윤철홍 역, 『로마법제사 (Max Kaser, Römisches Rechtsgeschichte, 2 Aufl., 1956)』, 법원사, 1998.

3. 국외문헌

- Asztalos, Monika, "The Faculty of Theology",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Berman, Harold J.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Caenegem, R. C. van, Judges, Legislators and Profess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Frier, Bruce W., The Rise of the Roman Jur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García, Antonio García y, "The Faculties of Law",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Gerbod, Paul, "Relations with Authority", Walter Rüegg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3: Universitie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180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Gieysztor, Aleksander, "Management and Resources",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1992.
- Moraw, Peter, "Careers of Graduates",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Nardi, Paolo, "Relations with Authority",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 Press, 1992.
- Radding, Charles M., *The Origins of Medieval Jurisprudence*, Yale University Press, 1988.
- Ridder-Symoens, Hilde de, "Mobility",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ies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Rijegg, Walter, "Themes", Walter Rijegg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3: *Universities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180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avigny, Friedrich Carl von, *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im Mittelalter*, Bd.2, 2 Aufl., J.C.B. Mohr, 1834.
- Ullman, Walter, "Honorius III and the Prohibition of Legal Studies", *Juridical Review* IX, Edinburgh, 1948. Reprints: George Garnett ed., *Law and Jurisdiction in the Middle Ages*, 1988, Ch.13.
- Verger, Jacques, "Patterns",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Verger, Jacques, "Teachers", Hilde de Ridder-Symoens ed.,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1: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A Study on the Origins of the Medieval Universities and the Legal Education

Kim, Young-Hee*

Modern universities are originated in the Middle Ages. The medieval universities had formed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been self-governed. They became a big social power during the Middle Ages. The medieval universities were different from other age's higher education systems on that point. The Popes and the Holy Roman Emperors had tried to get on universities good side by giving privileges. The reason was that the universities were the places where theoretical rationalization or authorization of medieval society could be yielded.

The typical two of medieval universities are the University of Bologna and the University of Paris. The University of Bologna was pro students, but the University of Paris was pro professors. The difference was no wonder, when thinking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University of Bologna was secular, and the University of Paris was clerical. People used to hire a teacher with secular purpose for a long time. Like that,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of Bologna would have thought that they had power to hire and control the professors. Compare to these,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of Paris were in the clerical structure. So, they would have thought that they should have to obey the professors.

In addition, the University of Bologna had concentrated on the Roman Law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of Paris on the theology and the canon law education. The universities had undoubtedly offered the liberal arts educati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

however, had more its meaning as a requirement to who want to fly on the school of law or the school of theology. It shows that the legal education was quite popular during the Middle Ages, and the universities were not so purely academic places.

[Key Words] University of Bologna, University of Paris, The Middle Age, Legal Education, Roman Law, Canon Law, Holy Roman Emperor, The Pope, Universitas, Studium Generale.